

영성을 통한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안드레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4년 5월

Copyright © 2024 Dre An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PRACTICE OF CHRISTIAN SOCIAL WELFARE THROUGH SPIRITUALITY

Dre An

YeoSu, Korea

In the early days of Korea, Christian social welfare was a driving force that led this country when it was difficult. But now, it is true that many organizations and companies are scrambling to practice social welfare, and Christian social welfare has been reduced a lot due to the pressure of wealth and scale. However, churches, Christian organizations, and individual members should not be left alone in this situation. God's mission to the church, that is, to preach the Lord's gospel to the ends of the earth through Acts 2, selling our own things like the early church, distributing them to each person, sharing them together, gathering, breaking bread, and always praying, as well as serving and serving for the poor, oppressed, orphans, and widows, before anyone else, our Christianity was deeply rooted in social welfare.

At the same time, we should do our best to see that we preach the word of God together, not just welfare benefits, and provide them not only the food of the flesh but also the food of the spirit, so that the modern church can enjoy the glory of becoming the people of God's kingdom, not the satisfaction of the world, through the realization of

social welfare through this Christian spirituality.

Healing Church was with the local community, always laughing and crying together, and became friends with those who needed healing and recovery due to the wounds in their hearts for the neighbors in need. We are still doing the work of the Holy Lord to always think about the local community, such as opening a free study room for students who have difficulty studying, Silver University, volunteer activities in rural areas, emergency relief for those in need, sharing holiday food, bazaar, Hwagok, and Yeonji social welfare center.

The Korean church is definitely in crisis. However, the role of the church should not be reduced and should stand up right away. I hope that the Korean church will preach the word of God together, not welfare for the import business, so that the amazing things that enter the gospel will happen to unbelieving souls who were firmly closed through Christian social welfare that are differentiated from other social welfare.

국문초록

영성을 통한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

안드레

여수, 대한민국

대한민국 초기에는 기독교 사회복지가 어려웠을 시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동력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단체와 기업들이 앞다투어 사회복지를 실천함으로써 재력과 규모에 놀려 기독교 사회복지가 많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회와 기독교단체와 개인의 성도는 이러한 상황에 넋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사명 즉 사도행전 2장을 통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받들고, 초대교회와 같은 자기의 것을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눠주고 함께 공유하고 모여서 떡을 떼고 늘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고아와 과부를 위해 봉사하고 섬겼던 것은 누구보다 더 먼저 우리 기독교는 뿌리깊게 사회복지에 앞장섰던 것이다.

그러면서 단순한 복지혜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며 이들에게 육의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까지도 제공한 것을 보면서 현대의 교회도 이 기독교 영성을 통해 사회복지의 실현을 통해 이들에게 세상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영광까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

치유하는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였고, 늘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어려운 이

웃을 위해, 마음에 상처로 인해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었다.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무료 공부방 개설, 실버대학, 농어촌 봉사활동, 어려운 이들을 위한 긴급 구호, 명절 음식 나눔, 바자회, 화곡, 연지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를 늘 생각하고 함께 걸어가기 위해 지금도 거룩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분명 위기이다. 그러나 교회의 역할은 축소되지 않고 바로 서야 한다. 한국교회가 수입사업을 위한 복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함으로 타 사회복지와는 차별화된 기독교 사회복지를 통해 굳게 닫혀 있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불일 듯 일어나길 소망한다.

목차

감사의 글	x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목적	2
3. 연구방법	3
4. 연구의 한계	4
II. 영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	5
1. 영성의 정의	5
2. 영성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	17
(1) 사막 교부들의 영성	17
(2) 동방정교회 영성	18
(3) 로마가톨릭 영성	20
(4) 개혁주의 영성	21
III. 사회복지에 대한 이론적 접근	31
1. 사회복지의 개념	31
2. 기독교 사회복지의 이론	36
(1) 사회복지의 성서적 맥락	36
(2) 구약성서와 사회복지	37
1) 율법서	37
2) 예언서	41
3) 성문서	42

	(3) 예수 사역의 사회 복지적 차원	44
	(4) 교회사의 사회복지 전통	51
	(5) 기독교 사회복지 개념과 이론	60
IV.	영성의 역할과 사회복지 실천	64
	1. 영성과 사회복지 사정	64
	2. 영성과 사회복지 개입	65
	3. 사회정책에서의 영성과 치료: 역사적 관점	67
	(1) 고대 수메르와 바빌론	70
	(2) 구약성경(The Old Testament)	70
	(3) 아나톨리아(Anatolia: 옛날의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71
	(4) 고대 희랍(Ancient Greece)	73
	4. 고대영성과 사회복지 실천	75
	(1) 신약성경: 누가복음	76
	(2) 키슈 마야(Quich Maya)	76
	5. 건강과 완전함에 관련된 영적 테마	78
	6. 영적 주제와 사회적, 문화적 배경	80
V.	영성과 기독교 사회복지와의 관계성	82
	1. 성경적 관점	82
	2. 역사적 관점	83
	3. 신학적/철학적 관점	84
VI.	영성적 사회복지 실천의 방법	87
	1. 미시적 접근: 클라이언트의 영성에 대한 임상적 관여	87
	(1) 클라이언트와 연대하기(Engaging with Client)	88
	(2) 통합적 사정(Holistic Assessment)	88
	(3) 능동적 경청(Active Listening)	89

(4) 개방형 질문을 통한 사정	90
(5) 간단한 도구들을 활용한 사정	90
(6) 임상적 과정에서 기도활용	92
(7) 로고 테라피(Logo Therapy)	93
2. 거시적 접근: 기독교의 봉사적 영성 강화	95
(1) 봉사신학정립	95
(2) 실천적 영성의 모델제시	96
(3) 이타적 목적을 위한 기도와 영성운동	96
(4) 봉사를 주제로 하는 목회적 활동에 대한 방법론 제시	96
(5) 기독교 교육에서 봉사를 위한 커리큘럼 도입	97
(6) 영성관련 문서 및 문화활동	97
(7) 사회복지사의 영성적 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	97
VII. 치유하는교회의 영성을 통한 사회복지 실천	99
1. 늘푸른 실버대학	99
(1) 교육목표	99
(2) 사역소개	99
2. 화곡, 연지 복지센터와의 연계	121
VIII. 나가는 말	127
참고문헌	129

감사의 글

2024. 5

안드레

먼저 이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학업과 논문 지도를 위해 힘써 주신 김영래 교수님과, 조병호 교수님, 레너드 스윗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때는 부목사때였는데 졸업을 앞두고 부족한 종이 담임 청빙이 되어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많은 것을 놓치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늘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치유하는 교회, 선교중앙교회 당회원과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늘 도와주시고 기도로 동역하여 주신 부모님과,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늘 제 곁에서 기쁠때나 슬플때나 함께 울고 웃었던 아내 조은애 에게도 감사하고, 교회에만 있다고 투덜거리면서도 잘 성장하고 있는 세 자녀 예언이와 예준이와 예듬이에게도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I 서 론

1. 문제제기

현대사회에 들어서도 영성을 사회복지와 연계하여 실천하는 것은 금기처럼 여겨지고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사회복지 부문에서 영성의 개입을 인정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대체로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먼저 영성의 개념화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영성’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한 개념들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는 비슷한 이유로서 영성이란 것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과학도 일종의 도그마처럼 완고한 신념을 갖고 있어서 과학적 증거로 제시되지 않으면 비록 옳다고 느껴져도 받아들이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셋째는 사회사업가의 주관적 관점이나 신념이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사회복지의 기본적 가치는 클라이언트의 자율성과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실천가의 영성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과정에 있어서 편견이나 왜곡된 조정에 빠질 수 있는 유인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째는 영성이 사회복지가의 품성이나 자질에 관련된 것이지 방법론적 도구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아직 전문성으로 인정받을 만큼 연구와 학문적 준비가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이다.¹ 이러한 부정적 인식들이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하나의 영역이

¹ E. Canda & L. Furman, *Spiritual Diversity in Social Work Practice: The Heart of Helping* (New York: Free Press, 1999), 63-64.

개척되는 단계에서는 언제나 나타나곤 했던 문제들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영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20세기 후반부터 이미 인간은 점차 합리주의의 비합리적 모순과 이성적 사고의 그 협소한 한계를 절실하게 깨닫기 시작하였다. 특별히 사회사업학문에서 단선적 사고(linear thinking)로는 인간의 복잡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전통적 과학지상주의는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²

2. 연구목적

사회과학적 영역에서 영성을 연구하는 것은 분명 새로운 지평을 여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실존적으로 볼 때 참다운 지식은 탈존(ecstasy)의 경험들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탈존이란 일상생활에서 당연시되는 상쾌를 벗어난다는 뜻인데 현대사회는 이러한 탈존적 세계관이 하나 이상 공존할 수 있는 상대주의적 시대이기 때문에 다원주의 사회라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성은 과학과 합리주의의 상대적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³ 이제 직관에 대한 신뢰가 받아들여지고 신비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 서서히 자리 잡혀가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세계에서 영성의 세계는 점차 자연스러운 인간의 경험적 영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피터 버거(Peter L. Berger)는 지식사회학적 방법을 통해 종교적 신앙이 갖는 초월성의 현실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는 “초자연은 과연 죽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오늘의 과학적 전제로서 받아들여지는 초현실의 무가치성에 대하여 사회학적으로 도전하면서 현대사회의 대중은 거대한 세속화의 흐름 속에서도 고통과 죽음의

² 박종삼, 『교회사회사업의 학문적 정체성: 문제의 제기』 (서울: 교회사회사업학회자료집, 2002), 27.

³ Peter L. Berger, 『현대사회와 신』 김쾌상 역, (서울: 기독교서회, 1995), 52.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주는 해석을 초현실의 세계로부터 추구한다고 하였다.⁴

따라서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해졌다. 그리고 사회사업 교육에서도 영성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커리큘럼상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또 1990년에는 이미

‘Society for Spirituality and Social Work’라는 학회가 결성되어 ‘Spirituality and Social Work’이라는 저널을 일 년에 두 번씩 간행하고 있다. 영성은 이제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며 내면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경험적이고 실천적이며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 포인트인 것이다. 깊은 영성의 세계는 우리들의 일상의 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 신비의 세계, 내면적 세계, 초월적 세계, 개인적 영역 등으로 연상되는 이 영성의 세계는 또한 일상적 세계이며 외면적 삶의 영역이고, 내재된 현장임과 동시에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현실의 세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영성을 통한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영성은 사회복지실천의 전제가 되기도 하고 목적이 되기도 하며, 동시에 실천적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먼저 다양한 영성의 개념들을 정리하고, 사회복지/사회사업을 위한 영성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후에 영성과 사회복지활동의 관계를 성서적/신학적/철학적 근거를 통하여 설명한 후 실용적 적용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⁴ Ibid., 46-47.

또한 치유하는교회의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위한 영성적 접근을 통하여 단순히 클라이언트의 만족과 세상의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을 통해 단순히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선시했던 그 사역을 대입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함께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4. 연구의 한계

이 연구는 그 논의의 성격상 신학적 방법과 사회과학적 방법이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 연구에서 활용되는 영성에 대한 논의는 다분히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기독교 사회복지에 대해 그리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날이 갈수록 사회복지에 대해 의욕적으로 국가 중요 정책으로 삼고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실업, 사회적 양극화, 근로빈곤 등 여러 복지 수요에 대한 만족을 끌어올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여러 종교와 기업들이 펼치고 있는 사회복지로 인해 상대적으로 빈곤한 소수단체들과 기독교 단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와 더불어 종교적 색채를 띄지 말라는 정부의 요청과 점점 개인주의로 변화되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 사회복지와 영성을 함께 제공하기가 더 어렵다는 점이다.

II 영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영성의 정의

영성이라는 용어는 많은 혼란을 우리에게 가져준다. 한자로 쓰면 ‘靈性’은 글자 그대로 신령한 성품을 의미하는 말로 들린다. 영어의 ‘Spirituality’는 정신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용어로 해석할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떤 카리스마를 소유한 사람을 영성이 깊은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물론 성경에는 영성이란 명사의 용례는 없지만 형용사 영적이라는 용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특성에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었다.⁵ 성경을 근거로 하여 영성에 대한 신학적, 교육 심리학적 통합모델을 제시한 권택조는 “참된 영성은 하나의 자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및 사람과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맺어가면서 그리스도다움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과정이다.”⁶라고 정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개념이다.⁷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관계성을 논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것도 영성이 제대로 발달되지 못한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는 잘 맺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못 맺는

⁵ 『기독교 대백과』 11권 (서울: 기독교문사, 1984), “영성” 항목.

⁶ 권택조, 『영성발달』 (서울: 예찬사, 1999), 87.

⁷ Ibid., 116.

것도 영성발달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⁸ 또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당연히 자신(자아)과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맺을 수 있다. 참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진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하고, 자아와의 관계도 잘 맺어야 한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형성해 가는 것이 참된 영성이며, 이러한 관계를 통한 삶 속에는 타인에 대한 관계회복과 자아에 대한 관계회복이 당연히 수반되게 되어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차원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결혼의 왜곡이나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저 성숙하지 못해서라거나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라는 부부간의 또 다른 수평선상의 무제라고 말하기 어렵다. 어떤 부부 각자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그들 사이의 본연의 관계도 온전하게 유지될 수 없다. 역으로 말하면, 상호간의 해결되지 못한 나쁜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도 맺을 수가 없으므로 인간관계는 상호간의 문제가 아니라 삼자간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성경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변화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한 개인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라는 의미이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효과적인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단순한 노력과는 다르다.”⁹는 것이다. 이와같이 영성발달은 그리스도다움을 추구하는 가운데 관계회복을 이루는 것으로, 이것은 단지 부정적인 자아의 치유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라 하겠다.¹⁰

⁸ Ibid., 120.

⁹ 탁균호, “영성발달을 통한 부정적 자아의 치유,” 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교 대학원, 1997.

¹⁰ Ibid., 3-6.

아직 올바르게 정립되지 않는 모호한 신학적 개념 탓인지 ‘영성’, 혹은 ‘영성적’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신비스러운 체험이나 열광적인 열심, 혹은 높은 수덕의 경지에 오른 이들에게만 해당하는 특별한 문제로 생각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결국 ‘매우 영성적이다’라는 말 안에서 무조건 열정적인 신앙생활, 혹은 신비스러운 황홀경을 추구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버렸다.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영성이란 말은 막연하게 뜬구름 같은 것이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방법이나 규범을 설명하는 말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영성(靈性)이란 무엇인가? 17세기쯤 프랑스의 신앙적 분위기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이 말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모호한 용어로 이해 표현되고 있다.

‘영성’, 혹은 ‘영성적’이라는 말은 인간이 가르쳐 주는 지혜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고전 2:14-3:3), 즉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마 22:34-40) 생활의 차원에서 쓰여지는 말이다. 5세기 초에 쓰여진 듯한 유사예로 니모의 편지에 처음으로 나타난 ‘영성’(spiritualitas)이라는 말은 성인 영세자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는 대목에서 사용되었다.¹¹

영성이란 영적성숙(Maturitas spiritualis)이나 영적여정(Itinerarium spiritualis)이라는 말과 분리될 수 없는 의미로 등장하게 된 용어이다. 그러므로 영적(spiritualis)이라는 말을 성령과 영향과 이끄심, 성령의 힘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그리고 성령께서 베푸시는 사랑안에 있는 상태를 서술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영성에 대한 개념을 쉽게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¹¹ D. G. 베너, 『정신치료와 영적탐구』 이만홍·강현숙 역 (서울: 하나의학사, 2000), 183.

영성, 혹은 영성적이라는 말은 신앙생활을 획일화 시키는 고착된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의 빛’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둠 속을 걷지 않도록(요 8:12) 생명의 길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행 2:28, 시 16:11) 그 분을 새 주인으로 맞아들여 믿는 가운데 더욱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요 1:12) 성숙해 가는 과정(빌 3:15)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말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점진적인 성숙과 변화를 추구하게 하는 틀이기에 매우 다양하면서도 역동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¹²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각기 지, 정, 의를 가지신 인격적 존재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으며 인격적으로 접근하신다. 그러므로 영성을 논할 때에 인간의 인격적인 면을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되며 성령의 지성적 능력이 인간의 지성을 발전시키고, 성령의 감성적 능력이 인간의 감성을 발전시키며, 성령의 의지적 능력이 인간의 의지를 발전시키며 인간으로 하여금 전인적인 영성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¹³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성령의 인격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다움(Christlikeness)으로 향하게 한다. 예수의 영성은 타자중심주의 영성이며 성육신과 지상사역과 십자가 사건으로 현시화, 구체화되었다.¹⁴ 예수의 타자중심적 영성(Spirituality of Other-Centeredness)을 지적으로 인지하고 정적으로 믿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음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이 크리스천 영성의 핵심이기도 하다.

인간의 몸은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 육체적인 면과 영적인 면이 통합된

¹² 권택조, 『영성발달』, 110.

¹³ Kwon Tack-Joe, "An Integrative Model for Spirituality Development in Three Domains of Learning Theory," (Ph.D Dissertation, Biola University, 1997), 112-117.

¹⁴ 권택조, 『영성발달』, 207.

존재이자 영성적 존재이다. 인간을 영적 존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을 자극하고 인도하며 활기를 불어넣어 변화된 삶을 가능케 하는 존재란 의미이며 그 과정을 두고 영성 발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프란시스 셰이퍼(Francis Schaeffer)는 참된 영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진정한 영적 생활이란 적극적인 생활이다. 적극적인 내적 실재이다. 이 적극적인 내적 실재의 결과가 외부로 나온다, 내적인 것은 긍정적 것이지만 단지 외적으로 적극적인 표현이 있게 된다. 우리는 어떤 사실에 대해 죽은 것으로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살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지내야 한다. 바로 이 역사적 순간에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하며, 인간으로서 사람들을 향해 살아 있는 우리가 되어 사람들과 진정한 인격적 입장에서 인간교제도 나누어야 한다. 그것도 바로 이 역사의 현재적 순간에서 해야 한다.”¹⁵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진정한 인격적 입장에서 타인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 적극적인 주도권을 성령이 행사할 때 인간은 영성적 존재가 된다. 성경은 육신에 의해서 주도되는 삶이 있고 영에 의해 주도되는 삶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¹⁶ 하나님의 영이 인격을 지배할 때 그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성에 조화를 이루게 된다.

영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기독교 영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브래들리 한센(Bradly Hansen)은 “영성이란 인간의 삶의 본질과 목적에 관한

¹⁵ 프란시스 A, 셰이퍼, 『기독교 영성관』 전호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297-298.

¹⁶ 로마서 8장 5-6절

확신에 따라서 사는 한 개인이나 한 공동체의 삶의 스타일이다.”¹⁷라고 말하였다. 하워드 L. 라이스(Howard L. Rice)는 “영성이란 우리가 우리 속에 그리고 주변에 계신 매우 실제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험에 응하여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양식”이라는 것이다.¹⁸

“영성은 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자신과 이 세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믿음의 체계로 끝나지 않고, 그에 따라 사는 삶의 구체적 표현의 체계 즉 실천적 체계이다. 즉 모든 영성은 나름대로의 삶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이해에 따른 삶의 구체적 표현, 즉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¹⁹ 이처럼 “영성이란 용어는 자기가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정신을 자기의 정신으로 받아들여 그 정신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던지는 것을 의미한다.”²⁰

그러나 한센의 말처럼 영성이란 말은 단순히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지, 또는 누구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의 정신을 자기의 정신으로 내면화시켜서, 소크라테스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스토아 철학자들은 스토아주의 영성이라고 부른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소크라테스의 인간과 삶을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정신을 본답아 사는 것을 최고의 덕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스토아주의자들은 소크라테스와 같이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여 소크라테스를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

¹⁷ Bradly Hansen Christion, “Spirituality and Spirituality and Spiritual Theology,” *Dialogue* 21. (1982):207; 안영권,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인가,” 『목회와 신학』 1993년 10월호, 38.

¹⁸ 하워드 L. 라이스, 『개혁주의 영성』 황성철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58.

¹⁹ 안영권, 『목회와 신학』, 38-39.

²⁰ *Ibid.*, 42.

이처럼 영성(靈性: spirituality)이란 용어는 자기가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정신을 자기의 정신으로 받아들여 그 정신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을 의미한다. 한 예로 심청전에 나오는 심청은 ‘효’라는 정신에 생명을 건 유교적 영성의 한 모범이라고 볼 수도 있다. 춘향전이 그토록 남자를 위해 절개를 지키고 죽기로 작정하는 유교적 영성이 깊이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영성이 있는 각각의 종교와 철학과 윤리들은 저마다 이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정신이 뒷받침하고 있는 가치관과 삶의 스타일, 그리고 이상적 모델이 있게 된다.

먼저 영에 대한 어원적 정의와 구약 및 신약적 영성의 개념을 다루면서 영과 영성에 대한 구분을 통해서 영성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고자 한다. 영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영과의 차이점을 밝혀야 할 것 같다. 기독교 대백과 사전에는 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영(靈) [영](spirit) [히](πνεμα) [헬](πνευμα) [라](spiritus) 이 용어는 하나님, 신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무형의 존재들 및 인간성 속에 내제된 신학적 요소를 가리킨다. 루아흐와 프누마 단어의 근본 의미는 「공기의 움직임」, 「미풍」 혹은 「바람」, 「호흡」이다.” 더 넓게는 「생명의 본질」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그 본래적인 개념은 창세기 1장2절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신」은 루아흐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바람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고도 번역될 수 있다.²¹

그러나 유념해야 할 것은 성경 어디에도 인간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왔다고 말한 구절이 없다. 인간이 영혼을 갖게 된 연유와 기원 그리고 그 기본

²¹ 『기독교 대백과』 11권 (서울: 기독교문사, 1995), “영” 항목.

속성을 가장 강력히 보여주는 성경구절은 창세기 1장 26절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구절이다. 하나님은 당신과 같은 영혼의 구조는 물론 육체까지 가진 인간을 창조하시기를 결정하시고 흠으로 직접 그 육체를 빚으시고 그 안에 영혼이 내재하게 하셨다.²²

영의 개념은 인간성에 속한 내재한 인간 본연의 본질이며, 핵심이며, 기운이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이며,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이다. 또한 영성은 영으로 인해 획득되는 관계성이다.

영성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영성은 기독교인의 핵심적인 기질이며, 예수의 성령에 의해서 개인의 소유가 된다. 그의 축복된 임재는 검증하는 도덕적 통찰과 획득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신비에 대한 점증하는 지식 안에서,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점증하는 부드러운 사랑 안에서 표현된다. 한마디로 말해 예수가 사람 사이에 살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계속 닮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영적 연합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가운데 기독교인은 그보다 높은 소명의 의무를 발견한다.”²³ 다시 말해 영성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 것이며 내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 인간과 관계 맺는 것이다.

구약에서 등장하는 이러한 영성 특징은 첫째,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람이 부는 것을 볼 수 없지만 감지할 수는 있다. 영성도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알 수 있다. 영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표현됨으로 마치 바람의 흔적처럼 알 수 있으며 영성이 통하는 그 기운 가운데 있으면 시원한 바람이 불 때의 느낌이

²² 『그랜드종합주석 I-창세기』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1), 343-344.

²³ 『기독교 대백과』 11권, 692.

있는 것처럼 어떠한 느낌이 느껴지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둘째, 영성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다. 동물에게도 감정이나 느낌은 있지만 도덕적 성품이나 정신적 활동은 사람에게만 있다. 아무리 지능이 뛰어난 동물이라도 인간의 고유한 능력인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셋째, 영성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모든 자연과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피조되었다. 자연현상이나 사람의 정신적 활동, 도덕적 성품, 의지 등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결국 영성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되면, 마치 신과 합일의 경험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신과 인간의 각 근원이 하나가 되는 합일은 없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합일은 단지 임마누엘(Immanuel)의 의미와,²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복종의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

신약의 헬라어 $\pi \nu \epsilon \tilde{\upsilon} \mu \alpha$ (프뉴마)는 바람이 불다, 숨을 쉬다.²⁵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자연의 바람, 인간의 숨결, 생명의 원인, 정신 등을 나타내는 말이다.²⁶ 따라서 프뉴마의 의미는 공기가 흐르는 것과 같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생명력을 의미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체험적 영성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예수에게(to him)”, “성령이 예수 위에(on him)”, “성령이 예수 속으로(into him)” 라고 각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다. 즉 세례받은 그날 예수님에게 성령이 강림 후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²⁴ 이선교, “영성신학적 이해와 영성개발에 관한 연구,” 신학석사논문,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1987), 31.

²⁵ 정인창, 『성서대백과』 (서울: 기독지혜사, 1981), 81.

²⁶ 문교수, “평신도 영성 훈련이 교회성장에 미치는 영향,” 신학석사논문,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1990), 11.

계속 머물러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²⁷ 제자들의 영적 체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며, 생활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요한은 곁옷까지 버리며 도망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 제자들은 실망과 두려움에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간다. 사형장에 나타난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 목숨을 다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증거한다. 영성은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통해 발견된다. 이러한 영적 체험은 성령의 사역인 동시에, 사람의 의지를 필요하는 체험이기도 하다. 구약에서의 영성이 이론적이고 원론적이라면 신약에서의 영성은 체험적이고 구체적이다.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다. 무엇보다도 기독교 영성이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 가능해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말한다. 이 관계 속에서, 인간의 영은 성령을 토대로 하나님과의 신비한 일치와 친밀감을 경험한다. 기독교 영성은 삶의 전 영역과 관련이 있으며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일터, 놀이, 성적관심, 기도, 몸,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영적 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며, 우리는 이 영적 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의 진정한 정체감을 발견할 수 있다.²⁸

권택조는 그의 책에서 “ ‘물질적인 것’ ‘인간적인 것’ 혹은 ‘문화적’ 인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피상적인 의미에 불과하며 신앙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초보적이고 문자적 해석일 따름이라는

²⁷ Ibid., 185.

²⁸ D. G. 베너, 『정신치료와 영적탐구』, 152-153.

것이다 왜냐하면 물질이 영성과 반대가 된다면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 육신은 입고 오시면 안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크리스천에게 물질을 주지 말아야 하며, ‘물질축복’이라는 용어는 비성경적인 말이기 때문이다.”²⁹ 라고 밝히고 있다. 영성이란 단어는 많은 개혁주의 교인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이 단어는 물질적인 생활에 반대되고 이로부터 떨어져 있는 한 영역을 은연중 암시하며 즐겨 이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삶이 서로 분리되고 독립적이거나 심지어는 서로 경쟁적인 두 개의 영역들로 서로 나누어진다고 믿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리는 영성에 대한 부당한 평가이다.³⁰

영성은 물질과 반대되는 개념도 아니며 신비스러운 것도 아니요, 문화와 반대되는 개념도 아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혼돈된 영적 세계 속에서 참된 통합적 영성을 말해야 할 것이며 그래야만 혼돈되고 오염된 영성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참된 영성의 좌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주의 전통에서, “영성”을 의미하는 단어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은 “경건”이라는 말이나 이 말을 암시적으로 상기시키는 모든 것들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경건이라는 말은 편협하게 판단적이며, 독선적인 것으로 들린다. 경건은 창조된 질서 속에서 기쁨을 찾길 두려워하며, 대신에 엄격한 규칙 준수에 대한 확고한 의무감으로 가득 찬 결심을 선택하는 종교적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에 감사로써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양식 그 이상의 것이 아니다. 경건에 대한 칼뱅의 정의는 경건의 범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²⁹ 권택조, 『영성발달』, 106-110.

³⁰ 하워드 L. 라이스, 『개혁주의 영성』, 58.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데서 비롯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경건’이라고 부른다.³¹ 경건은, 우리가 은혜로 덧입혀진 삶을 살며 하나님께 책임 있는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행하는 방법이다.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깊은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그 임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방법이다.³²

기독교 영성은 또한 성령에 의해 인간의 영이 잘라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성령에 토대를 두지 않은, 심리학자들에 의해 논리적으로 전개된 영성은 기독교 영성과 동일 하다고 볼 수 없다. 일반 영성은 인간이 영이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미칠 수 없는 어떤 존재에 굴복하여 자신을 초월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기독교 영성과 관련이 되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이 우리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존귀한 어떤 것을 열망하게 만든다. 우리가 이러한 자기 초월적인 포기(self-transcendent surrender)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순차적으로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했음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 초월도 하나님의 성령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지 않거나 또 성령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실한 기독교 영성이라고 볼 수 없다.³³ 기독교 영성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 복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진실한 기독교의 영성인 것이다.

³¹ John Calvin, "*Institutes for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 trans.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I.2. 1.

³² 하워드 L. 라이스, 『개혁주의 영성』, 58.

³³ D. G. 베너, 『정신치료와 영적탐구』, 152-153.

2. 영성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

교회사적인 면에서 본다면, 영성이라는 단어는 영국교회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그것은 성직자단 전체를 뜻하는 말이었다. 성직자들의 임무에 걸맞은 용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표준 영어 사전에는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의미가 나타나 있지 않다.

영성이란 말은 대개 현대적인 용어로, 경건(piety), 헌신적인 삶, 기도의 내적 생명 등을 의미하고 있다. 영성이란 말은 금세기에 들어와서 아주 널리 유행되는 용어다. 하지만, 18세기 이전까지는 영성과 꼭 맞는 성서적 용어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 개념을 신학적으로 정립하지도 못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와서 학자들은 영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영성을 형성 발달시키는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대개 학자들은 영성을 한 인간 전체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계로 정의한다.³⁴

(1) 사막 교부들의 영성

사막 교부들의 영성은 A.D 4.5세기에 절정을 이루었다. 예수 이전 시대로부터 이미 사막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가 되어왔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 받은 것도 바로 사막이었고, (출 3:2) 이스라엘 자녀들이 십계명을 받은 곳도 사막이었다. 그러므로 초기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각성(spiritual awakening)을 피하고자 할 때 사막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웠으며, 그때 이후로 사막은 글자대로의 의미에서 보나, 비유적으로 보나, 기독교 영성에 있어 변함없는 주제가 되어 왔다.

³⁴ 권택조, 『영성발달』, 22.

이 기간 동안 이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홀로 혹은 수도원과 같은 집단으로 이집트, 시리아, 그리고 팔레스타인 등지의 사막에서 살았으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영적 상담을 받기위해 그들을 방문하였다. 사막 교부들의 영성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 같은 사랑이 담겨 있다. 사막의 교부들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불 같은 사랑”으로 묘사하였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영혼 안에 점화되어진 불을 갖는 것인데, 이를테면 분노의 감정들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불태워서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랑의 불은 또한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며, 이러한 따뜻함을 사막의 신비주의자들은 육체적으로 느끼는 감미로운 감각으로서 묘사하고 있다.

사막 교부들의 영성은 고독, 금욕적인 금기, 영적인 정화, 자아에 대한 지식, 그리고 자기 통제를 강조한다. 사막은 환각을 극복하고, 영적 분별력을 얻으며 욕망을 정화하는 곳이었다. 이러한 영성은 철저한 헌신, 즉 자기의 거짓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였다.³⁵

(2) 동방정교회 영성

동방정교회 영성은 사막 교부들의 영성과 확연히 구별되어지지만, 또 다른 편에서 보면 이 둘은 연속선상에 있다. 사막 교부들의 관점에서 볼 때 동방정교회는 마음을 비우는 아포파틱(Apophatic)한 기도의 전통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적 고요와 침묵이라고 하는 독특한 동방교회의 전통으로까지 발전시켰다.

헤지키아(Hestchia)에서 파생된, “고요함” 혹은 “침묵”에 해당하는 그리스 말인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헤지카즘(Hesychasm)은 고요한 내적 기도를

³⁵ D. G. 베너, 『정신치료와 영적탐구』, 118-119.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생각의 지배를 받지 않는 기도이다. 이것은 받기 위한 준비로서 마음 비우기를 강조하는 기도에 대한 아포파틱한 접근이다. 좁은 의미에서 헤지카즘은 예수기도(Jesus Prayer)를 사용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특히 호흡조절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 예수 기도는 여러 가지 형식들 중에서 한 가지를 취할 수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표준이 되는 형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다. 짧지만, 아주 간결하게 표현이 되는 이 기도는 예수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되뇌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³⁶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신성한 이름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했다.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도 귀해서 감히 이 밖에 낼 수가 없었다. 예수의 이름이 갖는 권세는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신약성경 전체의 주제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하셨다(요 14:13). 또한, 사도 바울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단언함으로써 예수의 이름이 갖고 있는 권세를 입증하였다(빌 2:10).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쫓겨나고, 사람들은 치유되고 용서함 받는다. 예수 기도의 토대를 형성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에 대해 가지는 경외감이다.

예수 기도의 중요성은 예수 이름의 권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자의 신학적이면서도 헌신적인 완전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신학적으로 볼 때, 기도자는 기독교 신앙의 두 가지 신비스러움인 성육신과 삼위일체에 대한 요약을 담고

³⁶ Ibid., 120.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질을 떠오르게 해주는데 그는 인간의 이름인 예수와 신성한 이름인 하나님의 아들 이 두 가지로 불리기 때문이다. 그가 자식의 신분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성령이 내주하심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3) 로마가톨릭 영성

십자가의 요한은 기독교 영성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람들 중 하나이다. 아빌라의 테레사보다 더욱 아포카티하고 사변적인 그의 영성은 주로 성경에 그 근거를 두었다. 가톨릭에서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인식되었던 요한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아빌라 테레사의 영성은 매우 실제적이다. 그녀의 주장에 의하면, 주님은 스튜넬비가 있는 부엌에서 뿐 아니라 하찮은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 더욱이, 그녀는 관상기도(contemplation)와 일상생활에서 하찮게 보이는 일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며, 어느 한 쪽이 다른 쪽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드살레(1567-1662)는 프랑스 주교로 있으면서 이냐시오의 영성과 갈멜수도회의 영성을 결합시키려고 애쓴 결과, 아주 널리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묵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하게 되었다.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는 안내서」라는 책에 제시된 것처럼, 살레식의 묵상은 다섯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³⁷ 도미니카 마루카(Domic Maruca)는 이러한 회복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³⁷ D. G. 베너, 『정신치료와 영적탐구』, 130.

“영성이란 우선 첫째로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다. 성령 안에 거하는 체험에 대한 체계적인 반추와 해석은 부차적인 의미에서의 영성이라 할 수 있다.”³⁸

로마가톨릭의 영성이란 하나님에 대한 명상적인 사랑과 이웃에 대한 실천적인 사랑을 통합하는 깊은 신앙을 소유한 삶이다.

중세 동안 기독교의 영성은 점차 일반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갔다. 그것은 이미 수도원 밖의 세계에 영향을 주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루터는 당시 평신도들의 무지하고 맹목적인 신앙을 보면서 자신이 담당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에게 신학은 상아탑에 갇힌 지적 유희와 사변적 숙고의 과정이 아니라 경험적 지혜로서 신자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 안내자로 인식되었다. 루터는 중세의 영성신학이 인간의 종교적 경험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여기에 감춰진 인간 중심적 목적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적 목적으로 영성의 방향을 바꾸었다. 루터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는 것(*vita passiva*)을 의미했다. 루터가 발견한 이신칭의 복음의 빛에서 하나님의 주도성과 인간의 수동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기존의 인간 주도적 공로 사상에 근거한 중세 로마가톨릭의 모든 영성신학이 무너지게 되었다.³⁹

(4) 개혁주의 영성

영성이 본격적으로 교회 안에서 중심적인 관심을 얻게 된 시기는 중세의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였다. 13세기에 접어들어 기존의 제도적 교회를 부정하면서 청빈과 금욕 등을 주제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려는 그룹들이 수도원 운동으로

³⁸ Ibid., 138.

³⁹ 한국조직신학회 편, 『조직신학 속의 영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14.

등장했고, 기존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들을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존경심을 나타내는 긴장 관계 속에서 수도원 운동은 기독교 안에서 자유스러운 공간을 확보해 나갔다.⁴⁰

영성의 시각에서 본 루터의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중세의 수도원에 갇혀 있는 영성을 수도원의 담을 허물고 세상으로 되찾아온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 타락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루터는 수도원의 담을 허물고 영성을 이제 시장 한가운데로 옮겨 온 것이다. 이는 단지 영성이 대중들에게 전달된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영성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영성을 추구하는 주체와 범위가 수도원으로부터 세상으로 확대되었음을 뜻하고 그 한가운데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자리 잡고 있다.⁴¹

고대 교회에서 교회 중심의 영성을 강조했던 아우구스투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곧 삶의 수단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우리의 목표요 그리스도인의 인성은 우리의 영성의 길이라고 가르쳤고, 토마스 아 켐피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Imitatio Christi)이 영성의 전부(summa spiritualitatis)라고 정의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공동생활 형제단(devotia moderna)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다. 그러나 루터의 십자가의 영성은 이들과 견해가 달랐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예수와 같아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옳으나 이것이 능동적이 아닌 수동적이어야 한다고 루터는 생각했다.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이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가 이를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고난 받기를 추구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적극적으로 모방하는 것도 아니고,

⁴⁰ Karl Heinz Neufeld, "*Spiritualität*," *Lexikon der katholischen Dogmatik* (freiburg: Herder, 1991), 477.

⁴¹ 한국조직신학회 편, 15.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도록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⁴²

루터가 발견한 이신칭의의 핵심적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다. 루터는 우리가 이룬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sola gratia) 우리가 구원받는다든 사실을 발견했고 이는 모든 강요된 업적 위주의 영성으로부터 기독교의 영성이 자유롭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중세의 영성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서 끝없이 요구하시는 분이셨으나 루터의 영성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선사하시는 분으로 등장한다. 중세의 영성이 신자들을 억압하는 대상이었다면 루터에게서 영성은 그러한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에 의해 자유롭게 주어지는 은사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되었다.⁴³

중세의 신학 수업은 성직자들을 대상으로만 배타적으로 실시되었다. 중세의 신학자들은 수도원에 고립되어서 수도원의 수사들을 대상으로 신학 수업을 실시했다. 루터는 성서의 번역과 대중적 보급을 통해 신학 운동의 대중화, 즉 영성의 대중화를 꾀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 베네딕트 수도원에서도 성서 읽기와 묵상이 중요한 영성 훈련의 내용으로 시행되었지만 루터는 이를 수도사들로부터 대중에게 물꼬를 터 주었다. 따라서 성서를 중시하는 종교개혁의 원리는 교회의 신학의 전개 뿐만 아니라 영성의 대중적 실천에도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이 영성의 대중화에 공헌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리는 만인 제사장직에 있다. 종교개혁 영성은 분명하게 모든 신자들의 제사장직과 소명을

⁴² Alister E. McGrath, *Spirituality in an Age of Change* (Grand Rapid: Zondervan), 31.

⁴³ 한국조직신학회 편, 18.

인정한다. 종교개혁 운동은 원리와 실제에 있어서 평신도 사이에서 영적 지도력을 찾고 가치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종교개혁의 영성의 중심은 평신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것과 회복시키는 일이었다. 이러한 생각을 루터는 “독일민족의 귀족에게 호소함”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그러므로 지금 영적 계급으로 불리는 자들, 즉 사제, 주교, 교황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큰 위엄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며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고 성례를 거행하는 것을 그들의 의무로 가지고 있을 따름이다. 이것이 그들의 직무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영적 계급에 속하며 그들 사이에는 그들이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⁴⁴

종교개혁의 영성의 특징은 신앙과 일상생활의 전체적 수렴이었다. 특히 루터에게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정위 된 삶이 곧 진정한 신앙이요 영성이었다. 이로부터 세상을 경멸하는 수도원적 영성은 거부되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기회를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⁴⁵

루터는 세상 안에서의 영성의 훈련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을 주목했다.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였다. 가정은 루터에게 있어서 영적인 삶의 기초였다. 가정은 세례와 성례의 제단이 가르쳐지고 설명되는 곳이다.⁴⁶ 또한 교회는 영적인 성장과 신앙의 양육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다. 교회의 영적인 활력은 그 구성원 각자의 인격적 신앙으로부터 유리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정과 교회는 세상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전위대로서 영성

⁴⁴ 존 딜렌버거, 『루터 저작선-독일 민족의 귀족에게 호소함』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485.

⁴⁵ McGrath, "Spirituality in an Age of Change", 55.

⁴⁶ D. H. Tripp, "A Protestant Reformation." ed. by D. Jones, G. Wainwright, E. Yarnold, SJ. *The Study of Spirituality* (Landon: SCM, 1980), 344.

훈련의 중심이 된다.⁴⁷

개혁교회의 영성에 대해 중요한 저술을 한 라이스(H. L. Rice)는 개혁교회 의 전통에서 ‘영성’ 을 의미하는 단어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은

‘경건’ (piety)이라고 하였다.⁴⁸ 칼뱅의 영성에 대한 연구로 널리 알려진 리처드(L. J. Richard)도 경건을 “칼뱅의 영성의 본질적 표현”⁴⁹이라고 하였다. 정승훈도

“칼뱅에게서 경건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신학적 용어이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영성을 표현하는 것이었다.”⁵⁰고 말한다.

칼뱅이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에서 오는 자발적인 사랑, 즉 하나님께 순종하며 봉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처럼 칼뱅의 경건 개념은 철저히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웃이나 세상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칼뱅의 경건은 이웃에 대한 의무 및 세상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칼뱅의 사교의 주제는 경건이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학이라면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경건이다. 그러므로 칼뱅에게서는 앎과 경건이 분리되지 않는다. 경건과 하나님을 아는 것, 곧 신학은 상호 의존적이다. 홀트롭(P. C. Holtrop)은 그의 책에서 『기독교 강요』 는 교리와 삶, 신학과 경건을 통합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각 교리가 ‘우리를 위해’ 제공하는 유용성 또는 유익을 일관되게 강조한다.⁵¹ 고 하였다.

⁴⁷ 한국조직신학회 편, 18.

⁴⁸ 하워드 L. 라이스, 『개혁주의 영성』, 58.

⁴⁹ L. Joseph Richard, 『칼뱅의 영성』 한국칼뱅주의연구원 역,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6), 163.

⁵⁰ 정승훈, 『종교개혁과 칼뱅의 영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16.

⁵¹ Philip. C. Holtrop, 『기독교 강요 연구 핸드북』 박희석·이길상 역(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칼뱅은 성서의 신학자로 잘 알려져 있을 만큼 절대적으로 성서에 의존한다.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경건을 위해서이다. 경건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데서 시작하는데, 올바른 지식은 성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는다. 칼뱅이 성서를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 아니고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길이 없고, 따라서 경건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칼뱅에 의하면 국가라는 제도 역시 성화를 돕는 제도이다. 국가의 목적은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사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외적인 예배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지위를 수호하며, 우리를 사회생활에 적응시키며, 우리의 행위를 사회 정의와 일치하도록 인도하며, 우리가 서로 화해하게 하며, 전반적인 평화와 평온을 증진하는 것이다” 국가제도는 사회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경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다.⁵² 이수영은 칼뱅이 『기독교 강요』 80개 장 중에 어느 장도 경건을 다루기 위해 특별히 할애하지 않았지만 어느 한 장이 아니라 그 책 전체를 경건에 할애 했다고 말하면서, 칼뱅은 무엇을 논하든지 궁극적 관심은 경건이며 그것은 “그의 신학의 한 주제라기보다는 그의 신학 전체의 방향이며 목적” 이었다.⁵³ 고 주장한다.

경건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경건에 도달할 수 없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힘으로 경건에 이를 수 없다. 칼뱅은 경건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경건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에서 나와서

1995), 13.

⁵² 한국조직신학회 편, 『조직신학 속의 영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38.

⁵³ 한국칼뱅학회 편, 『칼뱅신학 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269.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것인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성령이다. 경건한 삶의 출발은 자기 부인이다.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세상과 욕을 포기하며 악한 욕망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 칼뱅은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죽임’(mortification)이라고 규정하는데,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타낸다. 경건한 삶의 출발인 자기 부인은 자기 스스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건은 성령의 역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경건은 선행하는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성령의 은혜와 그 힘으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정한 삶의 양식인 것이다.⁵⁴

칼뱅에게 있어서 신학과 영성은 더 이상 이분법적이지 않다. 그의 신학은 지성적 경건이었다. 그는 지식과 거룩한 영성을 통합했다. 그것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경건은 교리를 판단하는 기준이었다.

개신교가 영성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 가지는 반감의 깊이는 대부분의 개신교 성경과 신학 사전들에 영성에 관한 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영적 성찰이 가지는 의미를 삭제하고 동시에 그리스도께 대한 개개인의 헌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강조하려는 열망에서, 그들은 영적인 상태를 기술하는데 있어서 거룩함이나 경건함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 스스로는 영성이라는 말에 의해 두려워하지 않았다. 마틴 루터(1483-1546)는 독일의 수도원 전통의 계승자였다. 그는 신비주의자들 특히 에카르트(Eckhart)나 타울러(Tauler)의 책들을 읽었으며, 또한 자신이 직접 신비주의 영상이 담겨 있는 익명의 저자가 쓴 『독일신학』(Theologia Germanica)을 재판집하여 두 번이나 출판하였다. 루터는 이 책에 대하여 말하기를, 성경과

⁵⁴ 한국조직신학회 편, 38.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전집을 일단 배제하고 볼 때 하나님에 관해 그리고 인간이 놓여있는 상황에 대해 그에게 이 책보다 더 잘 가르쳐준 책은 없다고 하였다.⁵⁵

칼뱅주의적 영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영광이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예배를 더욱 알차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영성이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칼뱅이 가지는 비전의 웅대함을 통해 우리는 그가 왜 우상숭배를 금지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있는 것은 그림이나 동상, 혹은 상징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상이 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 교리는 또한 구원의 은총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전 생애가 점점 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바로 영적인 성장이다. 성화에 대한 교리가 없었다면 개신교도들은 영성에 대한 이론적인 기초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었을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성화에 대한 칼뱅의 교리는 개신교의 영성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⁵⁶

웨슬리는 온전한 성화 즉 완전한 사랑을 은혜와 반응의 연속으로 이해하였다. 그 연속에 의해서 사람이 자기 죄책과 그 죄로 인한 절망에서 나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칭의와 신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른다고 보았다. 성화의 생활은 신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른다고 보았다. 성화의 생활은 신생에 의해서 생겨난 새 생명으로부터 시작되고, 성령의 자비로운 사역을 통해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의 표현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요구하심으로 계속된다.

⁵⁵ Neufeld, 132-133.

⁵⁶ Ibid., 136.

웨슬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가장 크게 공헌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의 중요성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의 중요성도 강조한 점이다.⁵⁷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만남 이후 신앙과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되자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라는 개혁자들의 담대한 요구를 논리적으로 발전시켜나갈 때 결국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완전해야 한다는 명백한 요구에 이른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성화를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 으로 공식화함으로써 성화의 개념을 정의하기 시작 했으며,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 이 그리스도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활동을 통해 회개하고 믿는 마음으로 깨끗이 씻길 수 있으며, ‘사랑으로 순종하려는 성향’ 이 생활의 주요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⁵⁸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 근거하여 경건함(piety)과 관련된 영성을 소개하였으며 이것은 예배, 순종 그리고 섬김의 행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경적인 토대와 관련하여 이들은 설교를 영적인 영양섭취의 수단이라고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개신교 영성의 특성들 중 하나가 되었다.⁵⁹

웨슬리교 영성주의 주된 특징으로는 완벽(perfection)을 향한 성장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온전한 성화(entire sanctification)에 대한 웨슬리의 교리와 죄로부터 구원받는 길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엿볼 수 있다. 웨슬리에 의하면 한 개인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것과 그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도덕적 결함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해서 한 개인은 죄짓지 않을 자유를 제공받게 되는

⁵⁷ Melvin E. Dieter, 『성화에 대한 다섯 가지 견해』 김원주 역 (서울: IVP, 1992), 23.

⁵⁸ Ibid., 25.

⁵⁹ Neufeld, 137.

것이다.⁶⁰ 결국 “그리스도인의 완벽”이라 불리는 이러한 상태가 바로 웨슬리교 영성의 목표인 것이다.⁶¹

⁶⁰ Dieter, 『성화에 대한 다섯 가지 견해』, 52.

⁶¹ Ibid., 144.

Ⅲ 사회복지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Social Welfare)라는 용어는 현대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발생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에서부터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라는 용어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고,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의 용어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어의적, 이념적 개념을 정리하고, 경제학자의 견해와 더불어 최근 사회복지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어의적 개념에서 보면 사회복지는 ‘사회적(social)’이라는 형용사와 ‘복지(welfare)’라는 명사의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복합명사이다. 영어의 복지(welfare)란 뜻은 well과 fare의 복합명사로서 ‘평안히 잘 지내는 상태’ 즉 건강, 행복 및 번영의 상태를 의미한다. 한편 한자의 복지(福祉)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복’ (福)자는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고 ‘지’ (祉)자는 정서적 안녕을 의미하고 있기에 모두가 복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우리말로 복이란 넓은 의미로 “잘 산다”는 것인데 이는 물질적 풍요와 아울러 정신적 행복을 일컫는 것이다.⁶² 이와 같이 복지는 평안히 잘 지내는 상태를 의미하며 행복에 대한 이념을

⁶² 박경일 외, 『사회복지학강의』 (서울: 양서원, 2000), 19.

말한다.

여기에 사회적(social)이란 말이 첨가되어 사회복지(social welfare)는 사회적으로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는 개인의 행복 추구 뿐 아니라 사회전체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의적 개념 배경에는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누릴 권리나 존엄성이 있다는 이상적인 생활목표의 사상이 깔려 있다. 이러한 생활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상적 발달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회복지의 실천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⁶³ 따라서 사회복지란 인간생활의 이상적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인 동시에 그것을 지향하는 실천적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이념적 의미에서 사회복지란 구체적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막연한 의미로 사용되는 현실사회의 일련의 정책과 제도를 목표로 하는 목적적 개념이다. 한 국가와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사회 복지적 시책 자체가 사회복지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는 이상적인 목표적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훌륭하고 바람직한 사회로서 빈곤이나 불행이 없는 국민 대다수가 자유롭고 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⁶⁴

오늘날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세 가지 이념은⁶⁵ 첫째 풍요의 이념(the idea of abundance), 둘째 상호관계의 이념(the idea of mutuality), 셋째 개발계획의 이념(the idea of developmental planning)이다. 즉 인간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⁶³ 장인협, 『사회복지학개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2.

⁶⁴ 김완호 외, 『사회복지학개론』 (서울: 청목출판사, 2004), 19.

⁶⁵ E. Wickenden, *Social Welfare in a Changing World* (Washington, D, C: Public Affairs Press, 1965, 1-2.

물질적으로 풍부하기를 바라며, 그들의 대인관계를 통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평등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적 풍부와 사회적 평등은 정치, 사회 및 경제적 개발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게 한다.⁶⁶ 따라서 사회복지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불평등의 요인을 해소시키는데 있다.

또한 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학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군의 사회복지 연구자인 프리들랜더(W. A. Friedlander)는 사회복지란 개인 혹은 집단의 생활이나 건강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회적 서비스 및 제도의 조직적 체계라고 정의하였다. 즉, 사회복지를 사회적 서비스와 제도의 조직적인 체계라고 말한다.⁶⁷ 이것은 지역사회에 조화할 수 있도록 모든 개인의 능력 발달과 복지 증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 사회적 관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기능적인 관점에서 ‘보충적’ (residual) 개념과 ‘제도적’ (institutional) 개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보충적 개념은 가족이나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못할 경우에 한해서 이에 대처하는 사회복지의 기능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이 개념은 사회내에 두 개의 자연적인 경로인 가족과 시장경제를 통해 각 개인의 필요가 적절히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상적인 경로를 활용할 수 없을 때 사회복지가 보완적으로 관여하여 도움을 주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상적인 사회조직이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에는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간주하고 있다.

⁶⁶ 전재일 외, 『사회복지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2001), 4-5.

⁶⁷ Water A. Friedlander, Walter & Z. Robert,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1974).

제도적 개념은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 사회복지가 수행하는 정상적이며 우선적인 기능을 말한다. 이 개념은 어떤 긴급함이나 비정상적인 문제들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제도나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사회복지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계획적, 조직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이다. 즉 문제를 지닌 사람들을 보충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는 일차적인 사회제도로써 사전에 계획된 절차에 따라 도움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현대산업사회에서 각 개인의 자아완성을 돕기 위해 타당하고 정당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⁶⁸

던햄(A. Dunham)은 사회복지란 인간 노력의 광범위한 분야이고, 인구의 일부 또는 전체의 경제적 조건, 건강, 또는 대인적 경쟁을 개선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조직적인 활동이라고 하였다. Wickenden(E. Wickenden)은 사회복지의 국민적 복리와 사회질서의 기능유지를 위한 기초로서,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공급을 강화하거나 조장하는 법, 프로그램, 급부 및 서비스 등의 체계라고 하였다.⁶⁹

티트머스(Titmuss)는 사회정책을 사회복지제도라고 하면서 사회 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사회정책은 유익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경제적 목적 뿐 아니라 비경제적 목적을 포함한다.(예를 들면, 최저임금, 소득유지의 최저기준 등). 셋째, 사회정책은 빈자로부터 부자에게 자원통제에 있어서 진보적 재분배의 대책을 포함한다는 것이다.⁷⁰ 한편 티트머스와 미슈라(Mishra)의 사회정책은 사회봉사, 재정급여, 직업복지의 3가지로 구성되어

⁶⁸ 박용순, 『사회복지개론』 (서울: 학지사, 2001), 36.

⁶⁹ Wickenden, *Social Welfare in a Changing World*, 5.

⁷⁰ Richard M. Titmuss, "Social administration in a changing society," in *Essays on the Welfare State* (Boston: Beacon Press, 1963).

있다고 보고 있다.⁷¹

로만션(J. M. Romanshyn)은 그의 저서 『사회복지: 자선에서 정의로』에서 사회복지를 개인과 사회전체의 복지 촉진에 기본적이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개입을 의미한다고 하였다.⁷² 그에 의하면 사회복지의 여러 사회문제의 방지, 인간자원의 개발, 생활의 질적 향상 등과 직접 관련되는 법규와 처리과정의 문제 등을 포함한다. 또한 사회복지의 개념은 개인과 가족에 대한 사회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여러 사회제도의 보강과 수정을 위한 노력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그는 사회복지의 여러 사회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각종 활동이며 정책의 한 분야라고 말하고 있다.⁷³

장인협은 사회복지란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건강과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간과 사회제도 및 사회체제 간의 상호작용에 파생되는 제반 문제나 사회적 요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계획적인 사회정책과 사회적 서비스를 마련하여 제공하려는 정부나 민간기관들의 조직적인 노력이며 체계적인 실천 활동이라고 하였다.⁷⁴ 그런데 이러한 사회복지의 개념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 항상 변화되고 있다. 로만션(Romanshyn)에 의하면 사회복지의 개념은 보완적인 것에서 제도적인 것으로, 자선에서 시민권으로, 특수한 서비스(빈민)활동에서 보편적인 서비스(전체국민)활동으로, 최저기준의 달성에서 최적기준의 달성으로, 개인적인 개혁(문제해결)에서 사회적인 개혁(문제예방)으로, 자발성(민간후원)에서 공공성(정부지원)으로, 빈민구제에서 복지사회 건설로

⁷¹ 이영철 외, 『사회복지학』 (서울: 양서원, 2000), 19.

⁷² John M. Romanyshyn, *Social Welfare* (New York: Random House, 197), 70.

⁷³ 이영철 외, 『사회복지학』, 21.

⁷⁴ 장인협, 『사회복지학개론』, 12.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였다.⁷⁵ 후루카와(古川孝順) 등은 이에 대해 앞으로는 점점 생활의 공통적인 기초(life infrastructure), 그리고 생활의지 네트워크(life support network)로서의 사회복지가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⁷⁶

사회복지를 간단히 정의하면, “사회복지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개인과 사회적 욕구(need)를 충족하기 위하여 공공적, 민간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제공되는 제도나 정책적 서비스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할 수 있다.

2. 기독교 사회복지의 이론

(1) 사회복지의 성서적 맥락

성서는 민중에게 항상 복음적으로 역사한다. 이는 성서가 깨어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인하여 고통 당하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인간을 부르셔서 해방 시키시고,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를 ‘인간의 가능성과 행복을 극대화하고, 사회가 이루려는 유토피아로서의 목표를 향하여 가는 실천’ 이라고 한다면, 이를 구성하는 것은 고난 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돕고 섬기는 사회봉사와 대인적 사회사업, 그리고 사회문제를 초래하는 불의한 사회의 구조를 바꾸려는 사회 운동을 포함하여 총체적인 사회선교라고 할 수 있다.

⁷⁵ 박경일 외, 『사회복지학강의』 (서울: 양서원, 2001), 31.

⁷⁶ 古川孝順 외, 『社會福祉論』, 1993.

이는 교회성장 자체를 위한 선교로서의 전도와 엄밀하게 구분된다고 할 수가 있다. 한편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와 인간과 사회체제가 주도한다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의 결합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사회복지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사회활동과 현상 모든 것을 포괄할 지경이라는 데 있다. 사실상은 국가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를 위하여 인간과 사회의 시간과 물질과 정열의 지극히 일부분만을 사용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예산의 10%도 되지 않는 복지예산을 사용하면서 복지국가실현이라는 표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 사회복지의 올바른 개념과 방법론을 정리하기 위하여 성서적인 전거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구약성서와 사회복지

1) 율법서

구약의 율법서는 당시 절대왕권체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노예들을 해방하고 그 노예들이 주체가 되어 평등하고 자유로운 새로운 사회를 만들도록 부여한 하나님의 법률에 관한 유래와 그 내용을 담은 것이다.⁷⁷ 당시에 통용되던 다른 법률은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합의이거나 일방적인 강요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약속이자, 지도자와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약속이자, 지도자와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삼각협약이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은 해방된 사회를 만들과 지키기 위하여

⁷⁷ 서인석,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 (왜관: 분도출판사, 1979), 63-65.

약자와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영접하라는 사회복지적인 규범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선언⁷⁸은 당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리던 왕의 자리에 모든 인간의 지위가 올라간다.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⁷⁹는 명령은 우상으로 숭배하던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권에 대한 인간의 대리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간은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선언은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던 시대에 혁명적인 여성해방선언이다. 그리고 인간은 모든 조물의 이름을 짓고, 나아가 가꾸고 지키도록 부름을 받는다.⁸⁰

바벨탑 사건⁸¹은 당시 제국주의에 의해 인간사회가 통합되면서 자연을 다스리고 인간의 죄악을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동시에 겪게 되는 민중의 고역과, 민중을 고역으로부터 해방 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언어와 민족을 갈라놓음으로써 바벨론 제국을 해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제국주의 체제는 결코 인간을 해방시킬 수 없으며, 작은 단위의 공동체 사회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는 역시 문중의 생존권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다.

당시 가장 발달한 과학기술의 문명 속에 갇혀 있는 우상숭배의 질곡 속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⁸²는 세상의 민족들을 구원하시려는 역사의 시작이다. 믿는 자는 자신이 복을 누리는데 대신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⁷⁸ 창세기 1장 26절

⁷⁹ 창세기 1장 28절

⁸⁰ 창세기 2장

⁸¹ 창세기 11장

⁸² 창세기 12장 1-9절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일관되게 이웃을 위한 봉사와 구원이다.⁸³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항상 문밖에서 기다리며,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을 멸망으로부터 건져 내려고 지칠 줄 모르게 주께 매달려 멸망으로부터 건지려고 한다.

이삭은 이방 땅에 유랑을 하면서도 부자가 된 후, 이스라엘과 철천지원수인 블레셋과도 평화조약을 맺는다.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의 야심은 당시 장자에게 누리고 있던 차남의 생존권을 쟁취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가족을 떠나 멀리 타향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아람족속에게 경제적인 번영과 혜택을 주게 된다. 그리고 결국 그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⁸⁴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인 요셉의 일생은 형들에 의해 버림받은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통하여 이집트의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고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지극히 사회복지적인 역할을 한다.⁸⁵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에 의하여 실행된 출애굽사건은 당시 중동사회의 보편적인 제국주의적인 절대왕권체제와 봉건노예제에 의해 신음하던 백성들의 해방과 노예 없는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의미한다. 물도 식량도 없는 광야 40년 동안의 여정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훈련과정이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은 비록 땅이 비옥하지는 않으나 억압과 착취와 소외가 없는, 그래서 자기가 생산한 것을 자기가 소비할 수 있는 평등과 자유의 체제를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이런 나라를 세우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율법은 당시 강자와 가진 자를 지키는 중동지역의

⁸³ 창세기 18장

⁸⁴ 창세기 32장

⁸⁵ 창세기 40-50장

보편적인 법률과는 달리, 약자가 가난한 자를 지킴으로써 사회정의와 평화를 이루려는 질적으로 다른 법이었다.⁸⁶ 여호수아에 의해 수행된 가나안 점령과 토지분배는 지배자와 기득권층이 독점하고 있는 토지를 백성에게 평등하게 분배함으로써 궁핍이 없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다.

당시 중동사회에서 재산의 핵심인 토지는 오직 하나님의 소유이고 사람은 단지 경작권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마음대로 매매할 수 없으며, 부족단위로 시작하여 각 가족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었으나, 환경의 변화나 기타 변수에 의해 초래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예를 쉬게 하는 안식일과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안식년, 나아가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 졌다고 볼 수 있는 레위기에서도 나오는 50년마다 빚을 탕감하고 땅을 무르는 ‘희년제도’⁸⁷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현상을 개혁하여 항상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유지하려는 신앙 고백적 노력이었다. 이것은 예수가 실현하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원형이 되고 있다.⁸⁸ 그리고,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제도들 안에는 타락한 제사를 개혁하고 온전한 제사를 지냄으로써 하나님께 거룩하고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려는 정신이 담겨 있다.

신명기에서는 도피성을 세워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을 보호하도록 하였고⁸⁹ 살인자가 원한이 없이 회중에 의하여 정죄 되면 도피성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집과 가산에서 원상회복이 되도록 하였고, 매년 3년 끝에 십일조를 내어 성읍에 저축하여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안에 살고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⁸⁶ 서인석,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 86-90.

⁸⁷ 레위기 35장

⁸⁸ 누가복음 4장 18-19절

⁸⁹ 신명기 4장 41-42절

과부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다.⁹⁰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진 빛은 7년이 지나면 면제해 주도록 하였고⁹¹ 노예들도 7년이 지나면 자유인이 되었고,⁹² 이러한 율법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

율법서의 계명들은 당시의 체제에 의하여 억압당하던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나아가 새로운 삶의 양식을 창조함으로써 낡은 습관을 치유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2) 예언서

율법에 의하여 노예가 없는 평등한 공동체를 세웠던 이스라엘은 나라의 위기가 올 때마다 사사라는 지도자를 세워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나, 내부의 지도력의 감퇴와 왕권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방민족들의 경제봉쇄와 침략을 견디지 못해, 국가제도의 폐해를 예언하는 사무엘의 강력한 권고⁹³에도 불구하고 국가제도를 채용함으로써 평등한 사회의 근간이 무너지게 되었다. 국가제도에 의해 특권층이 생겨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 민중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BC 9세기부터 등장하는 예언자들은 가난한 약자를 보호하려는 율법을 파괴하고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언자인 ‘아모스’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가난하고 억압받는 백성들의 인권을 위하여 권력층과 부유한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고, 형식적인 번제와 기도 대신 선행과 법의 공정한 집행과 정의의

⁹⁰ 신명기 14장 18-19절

⁹¹ 신명기 15장 1절

⁹² 신명기 15장12절

⁹³ 사무엘상 8장

사회적 실현을 요구하였다.⁹⁴ 호세아는 이러한 현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변질과 형식화, 상도덕의 부패를 비판하고, 하나님 신앙의 회복과 공법과 정의의 실현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의식의 회복을 호소했다.

6세기 ‘이사야’는 정치적 권력의 남용과 사회 경제체제의 모순 때문에 생기는 토지의 독점과 빈민에 대한 착취, 사회적 특권계급의 사치한 생활에 대하여 비판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들을 판단할 것을 예언하고⁹⁵ 자유인으로서 고난 받는 종의 모습을 통하여 포로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깨닫게 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의 공동체적 사명을 선포하고 있다.⁹⁶

‘예레미야’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⁹⁷ 고 경고하고 이를 어긴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선언한다.

요컨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가난한 자들의 권리 위에 건설하도록 한 공동체의 윤리로서 제정된 율법을 파괴하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치부하면서 형식적인 제사만을 드리는 국가체제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다.

3) 성문서

성문서는 율법과 예언서보다 나중에 편집되었으나, 시편과 지혜 문서가 그

⁹⁴ 아모스 2장 6-7절, 8장 4절

⁹⁵ 이사야 11장 1-5절

⁹⁶ 민영진, “교회사회봉사의 구약 성서적 근거,” 바른 목회 실천협의회 편, 『바른 목회』, (서울: 한들출판사, 2001), 163-180.

⁹⁷ 예레미야 7장 6절

중심을 이루고 있다. 시편은 악하고 강한 자에 의하여 억압당하는 약자의 기도⁹⁸와 응답하시는 정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다. 시편의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한 백성을 환난에서 건지시고 진흙탕에서 일으키시는 정의롭고 전능하신 분이시다.⁹⁹ 지혜 문서는 대부분 현자들의 빈자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참된 지혜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예언자들의 외침이 이스라엘의 가난한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면 성문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¹⁰⁰

그러나 지혜서는 가난의 원인을 가난한 사람들의 게으름이나 무지와 방탕한 생활로 보고,¹⁰¹ 가난을 최악의 대가로 보기도 한다.¹⁰² 이는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관점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이는 솔로몬의 지혜가 다른 이방민족의 영향을 받은 것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혜문학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관심보다 그 질서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혜문학에 있어서 질서는 항상 ‘인과응보’의 사상이 적용된다. 한편 가난한 자는 지식의 부족이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그를 조롱하거나 학대하는 것은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⁰³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인류가 추구해야 할 세계라면 지혜는 인간으로 하여금 혼돈의 위협으로부터 그 질서를 유지하고 회복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⁹⁸ 시편 22편

⁹⁹ 시편 23편, 146편

¹⁰⁰ 서인석,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 167-168.

¹⁰¹ 잠언 24장 30-34절, 21장 17절, 23장 21절

¹⁰² 서인석,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 170-171.

¹⁰³ 잠언 17장 5절, 14장 31절

그러므로 인간은 창조질서로서 사회질서를 지키고, 파괴되었을 때에 회복시키고 발전시킬 책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지혜문서는 종종 가난의 원인을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으나, 주된 흐름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참된 지혜라고 말하고 있다.

이상 성경에서 살펴본 사회복지 개념과 사상을 보면, 첫째,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소외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어긋나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은 질서가 깨진 곳에서 질서를 회복시키는 해방의 역사를 나타나신다. 셋째, 율법은 간한 사람들이 억압과 착취와 소외를 당하던 사람들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넷째, 깨어진 창조질서로 인하여 사회에서 밀려난 약자들을 다시 공동체로 복귀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섯째,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의미한다.

(3) 예수 사역의 사회 복지적 차원

예수시대는 로마제국시대로서, 로마황제로부터 분봉 된 헤롯왕과 그 일가들, 그리고 로마에 의해 승인된 유대의 종교지도자들 등이 지배하는 시대였다. 기원전 5세기와 4세기에 번영했던 아테네의 민주주의¹⁰⁴가 희랍의 유산계급과 로마제국의 침략전쟁으로 무너졌다. 당시 희랍, 로마의 세계는 사회적 신분이 재산의 정도에 의해 결정되었다. 재산이 많은 유산계급은 홀륭하고, 고결하고, 공정하다는 칭송을

¹⁰⁴ 장일조, 『사회운동 이념사』 (서울: 전망, 1979), 32-35.

받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천하고, 낮고, 악하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¹⁰⁵ 더구나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는 인과응보의 교리에 따라 지위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의인이요, 가난하고 못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이라는 관념을 갖고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소외시켰다.¹⁰⁶

예수 시대인 로마의 아우구스티누스 황제의 통치시대에는 사회기강이 엄하여 이혼과 간통을 금하고, 낙태와 유아 유기를 금지하며 대가족 제도를 장려하였다. 한편 유대에서도 혈통을 중시하여 양친가계가 4대에 걸쳐 순수한 것이 증명되면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었다. 그래서 혈통과 종교적 성향에 의하여 로마에 굴복하고 기득권을 인정받은 현실주의자들로서 사두개파와 경건분리주의자들인 바리새파, 종말론적 수도주의자들인 에세네파, 무장폭력으로 투쟁을 주도하던 열심당 등으로 사회계층이 형성 되었다. 결국 예주시대의 사회 경제적 상황은 로마의 제국주의와 분봉영주, 그리고 부패한 종교지도자들에게 의하여 3중적으로 지배와 수탈을 당하고 있었고, 특히 같은 민족 안에서도 자치 의인인 기득권층이 당시의 실정법으로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가난한 백성들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민중을 억압하는 암담한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 받는 민중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다.¹⁰⁷

근본적으로 예수의 사역은 낮고 천한 곳에서 민중들과 함께 하는 성육신적인 삶이었다. 예수님의 목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이었다. 예수의 사역 안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선교와 교육, 봉사 이 세 가지는 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통합적이었다.

¹⁰⁵ 지동식, 『로마제국사와 기독교』 (서울: 신학연구소, 1986), 13-14.

¹⁰⁶ 누가복음 15장

¹⁰⁷ 김진호, 『예수의 역사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8), 95-102.

예수의 탄생은 세상 질서와 지배 이데올로기의 종말을 의미하였다.¹⁰⁸ 예수의 구원 사역은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¹⁰⁹

그래서 예수의 공생애 직전에 광야에서 40일간의 금식을 통하여 받은 사탄의 시험을 받는 사건¹¹⁰은 당시 유대인들이 대망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다윗 메시아상’을 갖추기를 요구하는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부하고 새로운 ‘민중 메시아 상’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¹¹ 이 광야의 시험은 예수 사역의 성격을 알게 해 주는 열쇠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예수는 사탄이 요구하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굶주리고 있는 민중을 먹이라”라는 경제성장주의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의 근본정신에 따라 가진 자들이 독점하고 있는 물질을 우선적으로 나눔¹¹²으로서 민중에 대한 구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과 물질은 함께 섬길 수가 없는 것이다.¹¹³ 의인으로 자처하는 부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죄인이며, 축적된 재물은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다.¹¹⁴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민중들의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것이다.¹¹⁵

둘째, 예수는 “민중을 구원하려거든 왕이 되어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¹⁰⁸ 누가복음 1장 42-55절

¹⁰⁹ 누가복음 4장 18절

¹¹⁰ 마태복음 4장 1-11절

¹¹¹ 조재국, 『예수, 십자가에 달린 민중』 (서울: 도서출판민중사, 1997), 274-309.

¹¹² 요한복음 6장 1-13절

¹¹³ 마태복음 6장 24절

¹¹⁴ 누가복음 18장 18-30절

¹¹⁵ 마태복음 6장 24-34절

변화시키고 민중을 해방해야 한다”는 사탄의 요구를 거절한다. 다시 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다윗과 같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정치적 메시아니즘을 거부하고¹¹⁶ 오히려 낮은 곳에 내려가 민중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으로서의 새로운 메시아 상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국가권력이라는 제도를 통해 사회를 변화, 혁신하거나 민중이 보호를 받으려는 것은 불가능한 환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¹¹⁷

셋째, 예수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많은 대중의 신임을 얻어 민중을 구원하라”는 기복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종교지도자상을 거부하고 일상과 침묵 속에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순종을 통해 완성되는 진정한 메시아 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원칙은 기존 체제에 대한 명백한 거부를 나타냄과 동시에 기존의 사회체제를 변화시키고 민중을 구원하려는 사회 변화, 혁신운동의 방법들에 대하여 재고하게 한다.¹¹⁸

경제성장을 통하여 민중을 굶주림으로부터 해방하려 하거나 국가권력을 획득하고 이용하여 제도와 법을 변화시키는 상층 변혁운동으로써 세상을 변혁하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와 제국주의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증명되었다

더구나 한국교회의 성장이 우리 사회의 변화와 민중의 해방을 주도하고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더 심화시키거나 세속적인 이데올로기에 끌려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 IMF와 코로나 이후 한국의 대형교회는 더욱 흔들리고 성장이 멈추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지도자들의 부패와

¹¹⁶ 마태복음 6장 14-15절

¹¹⁷ 민영진, 『바른목회』, 163-173.

¹¹⁸ 장일조, 『사회운동 이념사』, 41-42.

교회 세습과 같은 일에 휘말려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실업자들을 비롯한 민중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였으며, 신자유주의의 명백한 폐해를 보고도 이를 비판해야 할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

예수의 갈릴리 사역은 민중에 대한 사회 복지적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고, 앓은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죄인을 영접하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등 참으로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신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의 죄 없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민중의 죄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대상자의 죄 없음’을 선언하는 죄 사함, 즉 해방의 사역이다. 해방을 통해 치유가 일어난다. 이는 세계와 인생을 보는 관점의 전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치유의 사역은 성령의 손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은혜이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의사소통의 역사와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의 형성¹¹⁹은 모두 하나님의 사회 복지적 역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역방법에 있어서도 일반 사회복지 기법과는 질이 다른 차원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친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 곧 무너지고 새롭게 변화될 것을 선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억압받고 있는 가난한 민중이 새로운 사회의 주체로 나서야함을

¹¹⁹ 사도행전 2장

요구한다.¹²⁰ 그리고 그들이 주체로 나서는 데 장애가 되는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자기를 따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민중, 병든 자, 가난한 자, 장애인, 여성, 어린이 등이 찾아오면 먼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는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육체적으로 병이 낫고, 보고, 듣고, 말하고, 몸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는 그러한 직접적으로 욕구를 들어주는 대신 그 원인이라고 생각 되는 죄로부터 해방을 선포하신다. 왜냐하면 당시 민중들은 종교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따라 질병과 빈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포하고, 그 믿음대로 되기를 기원한다. 결국 민중의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 변화되며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

일반 사회복지의 인간 사회 복지적 필요와 욕구의 원인을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경향이 많았다. 이는 사회복지의 대상인 민중을 정죄하는 오류 속에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의 효과를 위해 대부분 인간의 결핍된 욕구를 채워주는 ‘동기부여’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이 욕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믿음 없이는 해방과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물질적인 결핍이나 장애를 고쳐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보게 하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 주었다. 예수님의 사역은 민중이 가진 인간의

¹²⁰ 누가복음 6장 20-26절

욕구를 초월하게 함으로써 즉, 원하는 것보다 한 차원 더 앞으로 나간다.

물리적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것을 보게 한다. 이것이 주님의 사회복지의 기법이요, 구원방식이다, 이것은 믿음이 없거나, 지위와 물질을 많이 갖고 집착하는 자들에게는 잘 통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재물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에 대한 바람을 가지기 어렵고,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는 민중들만이 이러한 인간적인 욕구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기 때문이다.¹²¹

사회복지사업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곤경은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단순한 결핍상황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주님의 기회이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절호의 기회이다.¹²²

따라서 실재하는 인간사회의 모순은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주셔서 모든 인류를 깨우치려는 자비를 의미한다.

결국 예수의 사회복지적인 사역은 내담자의 가치관을 변화시키지 않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을 주지 못하는 일반 사회복지와는 달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을 알게 하고, 개인적인 영혼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전망을 갖게 함으로써 민중의 의식을 깨우고 즉, 진리를 깨달아 자유인이 되게 하여, 마음과 삶의 양식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가난한 민중을 섬기고 나누고, 대변하는 공동체적인 삶을 실천하게 한다.

¹²¹ 마태복음 19장 16-26절

¹²² 요한복음 9장 1-7절

(4) 교회사의 사회 복지 전통

초대교회는 예수의 하나님의 선교사역을 공동체적으로 구현하려고 했다. 신약성서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 뜨겁게 기도하며 성전에 모여 주님의 부활을 전파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함께 떡을 떼고, 가진 것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어 굶어 죽는 자들이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¹²³

교회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종말론적 공동체로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서로 봉사함으로써 하나가 되며, 가난한 이웃을 영접하고 섬기고 나누고, 목숨을 걸고 대변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다.

교회 안에서 예배와 봉사와 친교가 하나가 된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민중에 대한 섬김과 직결되고 나눔의 친교로 이어지며, 봉사는 민중을 형제로 영접하는 것이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종말론적 친교가 이루어진다.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진 사회복지는 단순한 구제와 자선이 아니라 총체적인 구원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새로운 삶의 양식의 실현이었다.

초대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물질의 분배와 구제에 다소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여, 소외되었던 신자들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사도들이 그 일을 다 담당할 수 없었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도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¹²³ 사도행전 2장 42-47절

사람을 세워 그 일을 담당하게 한다. 그것이 집사의 선택이다. 집사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라고 하는데 그 뜻은 배 밑바닥에서 발이 묶인 채 노를 젓는 가장 비참한 노예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결국 ‘종’ 이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 이다. 구약 시대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대변하는 임무를 일반적으로 국왕들이나 방백이 맡았으나, 출애굽사건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인 이스라엘에서는 백성 모두의 임무가 되었고,¹²⁴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집사선택을 통하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들의 자발적인 임무가 된다. 결국 집사들은 인간의 노예상태로부터 해방되어 스스로 민중의 종이 되는 삶을 실천하는 최초의 사회사업가의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¹²⁵

초대교회 최대의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¹²⁶ 이는 당시 로마제국 치하에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황제와 같은 권세잡은 자들과 부자들을 주인으로 섬겨야 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정죄 당하고 멸시 당하던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낮은 곳에서 가난하고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임을 선포하는 혁명적인 메시지이다.

그리고 바울이 강조한 ‘믿음’ 이란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의로운 실천과 ‘행동’ 이 수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통하여 민중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되고 온전해지는 공동체를 통하여 구원을 받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¹²⁴ 서인석,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 114.

¹²⁵ 김기원, 『기독교 사회복지론』 (서울: 제일법규, 1999), 80.

¹²⁶ 로마서 1장 15절

이는 당시 고통 당하던 가난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서도록 하는 예수님의 해방의 사역을 계승한 것이고, 공동체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치유의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이를 확장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로마의 황제가 선포하는 ‘로마의 평화’ 를 신뢰하지 않고,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예수의 교회를 섬기고 지켰으며, 장차 로마의 거짓평화와 박해를 이기고, 정의와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도, 애통함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임할 것을 회구하였다.¹²⁷ 성경 전체를 통하여 흐르는 하나님의 의, 사랑, 평화의 전망은 이 메시아 왕국의 전망 속에서 하나로 모아진다고 할 수 있다.

A.D 313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됨으로써 교회가 국가권력과 부와 명예를 얻고 제도화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과의 공동체에서 점차 벗어나 특권계급화 되어가던 모습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작되는 중세 수도원 운동으로 고아와 고부와 노약자는 물론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돌보던 예수의 사역을 계속한다. 그러나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지던 공동소유와 공동 관리의 전통이 깨어지고, 점차 종교적인 명상생활과 신비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비현실적인 종교로 퇴보하는 한편, 점차 가난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빈곤과 비현실적인 종교로 퇴보하는 한편, 점차 가난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빈곤과 질병과 장애의 원인을 개인에게 돌리는 분위기가 생겨남으로써 사회 구조적인 복지를 시도했던 예수님의 길에서

¹²⁷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많이 벗어나게 되고, 점차 지상천국건설의 염원은 사라지게 된다.¹²⁸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루터는 ‘믿음’ 과 ‘은혜’ 와 ‘말씀’ 으로 구원을 받는 다는 것을 강조한 나머지 이웃을 영접하고 돕는 교회의 사회복지적인 행동과 실천을 약화시키고 국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게 된다.¹²⁹

그러나 칼빈은 빈민구제를 교회의 사도적인 의무라고 주장하고, 국가나 세속적인 세력의 도움을 받지 않는 교회가 주관하는 별도의 구제 사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집사의 임무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보는 거룩하고 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예배에 과도한 비용을 들이는 것을 비판하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청빈해야 하며, 이웃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개별적인 빈민구제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인 자활구제 사업을 전개하려고 노력하였다.¹³⁰

가장 혁명적인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토마스 뮌처는 소시미적인 루터와는 결별하고, 당시의 민중의 고통의 원인인 특권재산제도를 비판하고 원시 기독교처럼 모든 물질을 공유하는 공동체적인 사회 건설을 주장하면서 급진적인 농민혁명을 주도했으나 조직의 혼란으로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¹³¹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근대에 들어서면, 봉건사회제도의 붕괴와 초기자본주의 제도에서 비롯된 비참한 사회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18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나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사회운동을 주장하는 ‘기독교사회주의 운동’ 은 직접 간접적으로 노동조합운동, 소비자조합운동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¹²⁸ 김기원, 『기독교 사회복지론』, 100-110.

¹²⁹ Ibid., 116-122.

¹³⁰ 기원, 『기독교 사회복지론』, 122-123.

¹³¹ 장일조, 『사회운동 이념사』, 131-133.

뿐만 아니라, 당시 무질서한 자선활동을 보를 세우는 작업으로서 ‘사회진단’을 하게 되고,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기능을 수행하고, 나아가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케이스워크기능’을 강화하였다.¹³²

그리고 상류계급의 출신들이 자진하여 빈민지역으로 이주하여, 빈민 지역을 조사하여 주민들의 생활실태를 자세히 파악하고,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원조하여 주는 ‘인보관운동’은 기독교사회복지 전통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 사업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육신 정신과 증보적 행동, 그리고 지역조사사업에 근거한 전문적 사회사업의 기초를 놓았고, 집단지도사업방법을 개발하는 원류가 되었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가 진전되고 자본주의가 정착되어 가면서 민중의 해방을 부르짖는 사회주의혁명 운동이 일어나고,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공황과 같은 대량 실업과 빈곤이 심화되면서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으로서 국가의 사회복지 책임이 강화되면서, 기독교는 점차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후퇴하여 영혼의 구원이라는 차원으로 퇴보하거나, 국가가 위탁하는 사회사업의 영역으로 한계를 짓게 되어 ‘해방과 치유와 공동체 건설’이라는 기독교의 고유한 사회복지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

현대국가가 전개하는 사회복지는 계급투쟁을 통하여 자본주의를 타도하려는 혁명의 방지와 자본주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민중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실행된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을 통하여 일으키신 ‘해방과 치유와 공동체 건설’의 역사와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치유의 사역, 그리고 초대교회의 공동체 운동은 현대국가의 사회복지 체제나 어떤 사회사업 프로그램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¹³² 장인협, 『사회사업실천방법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11.

한국의 교회사에 있어서 사회 복지적 흐름은 먼저 가톨릭이 전파된 후 선교사들에 의해 전개된 아동복지사업을 통하여 시작되었으며, 박해를 받아 크게 발전하지 못했으나 고아원과 양로원을 통한 복지사업으로 이어졌으며, 개신교가 들어온 후 의료사업과 교육 사업이 활발해졌고, 점차 장애인 교육 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서도 구제와 사회봉사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여성인권운동과 민권운동과 자주독립을 위한 사회 계몽운동을 이끌었다.

내한 선교사들의 사회복지사업은 1920년대에 들어서 활발해졌다. 선교 초기에는 교육과 의료, 전도에 전념하느라 사회복지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 최초의 사회복지기관인 태화기독교사회 복지관이 1921년 미국 감리회 여성들의 후원에 힘입어 태화여자관으로 출발한 것이 한국 기독교의 사회복지, 나아가 한국 사회복지 역사의 시작이다. 당시 사회문제는 다양했지만 역시 억압되어 있는 여성들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한국의 기독교 사회복지가 여성복지로 시작하였다. 김활란은 1934년 감리회 한국선교 50주년 기념식 에서 감리회가 한국 여성에 끼친 영향으로 첫째, 말씀, 둘째, 가정생활의 변화, 셋째, 여성병원·유아복지·공중보건 사업, 넷째, 여성 교육을 뽑았다. 김활란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성의 복지는 사실 유아복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여성복지는 곧 모자복지(母子福祉)와 유아복지로 이어졌다. 당시 한국의 유아복지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다. 1926년 8월 24일자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면 1921년부터 1925년 사이 서울에 거주하는 한국인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은 49.6%였다. 둘 중 하나가 5세가 되기 전에 사망한다는 끔찍한 수치이다. 아동 사망 원인은 소화기 계통의 병, 호흡기 병, 신경계 병 순으로 나타났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영양 결핍에 있었다.

선교사들은 이 영양결핍과 그로 인한 유아 사망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했다.

1923년 미감리회 해외여선교회 파송으로 내한한 마렌 보딩(Maren Bording)은 공주 지역 의료 선교사인 파운드(Norman Found)의 조수 역할로 그의 사역을 시작했다. 보딩은 파운드와 왕진을 다니다가 아기들이 열악한 건강 상태에 놓여있는 것을 확인하고 1924년 특별한 지원조직도 없이 개인적으로 유아복지 사업을 시작하였다. 시작은 병원 한 칸에서 유아진료를 보는 것이었다. 그러다 아이를 위해 머라도 더 배우고 싶었던 어머니를 모아 ‘자모회’를 만들고 위생과 육아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아의 사망률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영양부족으로 인한 질병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보딩은 한국에서 우유가 음식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3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하루 1-2병의 우유를 먹일 수만 있다면 아기들을 질병에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우유급식을 위해서는 우유병과 젓꼭지의 소독 시설을 갖춘 건물이 필요했다. 그는 이 공간을 위해 병원의 간호사, 성경부인과 함께 특별기도회를 갖기 시작했다. 몇 달 후 미감리회 여선교사회에서 연락이 왔다. 미국의 어느 노신사가 기부를 약속했다는 소식이었다. 보딩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알았다”며 기뻐했다. 1926년 6월 공주에 한국 최초의 우유급식소가 문을 열었다. 보딩의 판단은 정확했다.

1927년 보딩은 본국에 보내는 보고서에 자신의 유아복지와 우유급식사업 대상인 아이들의 사망률을 5%라고 보고하였다. 비슷한 시기 서울의 유아사망률 50%와 비교하면 10분의 1로 줄어든 것이었다. 효과가 확인되자 1928년 서울과 평양에서도 선교사들에 의해 우유급식이 시작되었다. 평양의 어떤 어머니는 이미 아이 둘을 잃고 세 번째 아이마저 잃을 수 없다는 일념에 하루에 세 번씩 우유를 타기 위해 먼 길을 걸어왔다. 우유를 차갑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한국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것이다.

우유급식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에는 젖소가 몇 마리 없어 우유를 전부 수입해 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유 조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한국의 아기 한 명을 입양 결연하여 우유급식 비용을 대주었다. 한국인 고위관리나 지방 경찰서도 후원에 동참했다. 역시 아이들을 살리는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이다.

선교사들은 부족한 우유 대신 염소의 젖을 이용하거나 두유를 만드는 식으로 우유급식사업의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싸맸다. 더 많은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려면 비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만 했다. 10년 뒤인 1938년 태화복지관의 로젠버거(E. T. Rosenberger) 선교사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액체와 분말 두유를 도입하여 가난한 아이들에게 주기위해 노력했다’면서 “현재 분말 두유는 한국 전 지역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고 하였다.

선교사들의 노력이 한국 아동의 건강을 개선하는데 역할을 제대로 한 셈이다. 우유급식사업이 단지 유아의 사망률만 낮춘 것은 아니었다. 아멘트(Charles C. Amendt) 선교사는 “아기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그 부모들의 마음을 냉랭한 채로 두지 않을 것”이라 말하면서 우유급식 사업이 복음전도에 끼칠 긍정적 가능성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우유급식사업은 아이의 건강과 부모의 영혼을 모두 구했다.¹³³ 해방 후 한국교회는 신사참배의 후유증으로 교리와 신학노선을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냈고, 6.25 전쟁 후 복구와 구호를 위한 원조와 지원에 의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지시설들을 운영하게 되었으나, 조직적이지는 못하였으며, 점차 산업화가 진행되는 1958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을 필두로 산업전도위원회가 만들어져 노동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단초를 이루었으며, 60년대 이후 경제개발에 의하여

¹³³ 교회역사 강의 - 한국교회사 50장면 (33) 한국 사회복지의 시작|작성자 백두에서 한라까지

산업화가 가속되어, 이농으로 도시화가 급진전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자, 1970년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의 죽음과 미국의 조직운동가 쏘울 D. 알린스키의 주민조직행동이론에 힘입어 산업선교가 선교방식을 현장을 변화시키는 선교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자현장조직운동을 통해 많은 노동자들의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교회는 양적 성장에만 매달려 민중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으나, 마침 유신정권에 의하여 해직된 신학자와 지식인들에 의하여 민중의 고난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해방사건 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교 신학’ 을 정리하는 한편, 한국적인 신학으로서 ‘민중 신학’ 이 태동하게 되었으며, 1980년 서울의 봄과 5.18광주 민주항쟁을 무자비하게 진압한 전두환 정권에 의해 민중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자, 한국사회와 미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많은 지식인들이 사회변혁을 위해 사회과학으로 무장하고 공장과 빈민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는 한편, 산업선교의 전통을 계승하려는 젊은 목회자들도 80년대 중반부터 빈민, 공단지역에 민중교회를 세우고 민중들과 더불어 고락을 함께 하였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노동자들의 권리가 신장되고, 정치적 공간이 넓어지는 동시에 사회복지의 욕구도 분출하자, 이에 1990년대 노태우 정권의 200만호 건립과 영세민 임대아파트 건립 및 사회복지관 운영을 시작하자, 교회도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 경제적으로 다소 풍요로워지고 산업화와 도시화가 점차 심화되었을 때 생태계의 파괴가 심각해지자, 환경단체는 물론 교회들도 나서서 신앙고백적인 환경운동과 생태적 귀농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나, 사회복지 정책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다가, 외환위기와 IMF 체제로 대량해고와 실업이 발생하여 교회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을 때, 빈민지역에서 일하던 민중교회를 중심으로 긴급구호와 자활사업 등이

전개되었고, 88올림픽 이후 늘어난 외국인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5) 기독교 사회복지의 개념과 이론

사회복지란 “사회적으로 잘 지내는 행복한 상태”¹³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실질적 개념은 나라와 시대와 상황에 따라 항상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¹³⁵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에서 사회복지개념은 “스스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 사회적인 약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노력의 총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의 어떤 특별한 조건 때문에 소외당하고 있는 계층을 향하여 보건, 교육, 고용 등 특수한 삶의 원조를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사회복지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를 구제 사업이나 사회사업이라고 말해지는 방식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보충적’ 사회복지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사회복지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노력의 총화”¹³⁶를 가리킨다. 즉 사회복지란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상의 곤란과 문제를 개인적, 집단적, 지역사회 수준에서 예방하고 보호하며 치료 회복하기 위한 민간적, 공적 개입의 프로그램, 서비스 제도 등의 총체적인 체계¹³⁷라고 할 수 있다.

¹³⁴ 장인협, 『사회복지학개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3.

¹³⁵ 전재일 외, 『사회복지론』 (서울: 형성출판사, 1996), 3.

¹³⁶ 김만두, 『현대 사회복지 총론』 (서울: 홍익재, 1982), 19.

¹³⁷ 박태우, “성서에 나타난 사회복지상에 관한 연구,” 서울 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2000), 6.

결국 사회복지의 정의를 “국가와 국민이 합심하여 모든 국민(개인과 집단, 지역사회)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전문적 통합적 대책”¹³⁸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사회복지는 “지역사회내의 사회문제를 교회의 선교적 출발점으로 받아들이고 교회가 주체가 되어 사회복지의 프로그램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실천하는 것”¹³⁹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나아가 기독교사회복지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하기 위하여 교회가 주체가 된 총체적인 구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기독교사회복지는 일반사회복지가 문제시하는 인간과 사회내의 수평적 관계에서의 문제를 포함하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사회복지를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가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측면을 넘어서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체제, 즉 하나님의 나라의 파괴된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한 믿는 자의 공동체적 사명으로 본다. 믿는 자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은 인간적인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믿는 자의 생명과 관련된 경건의 요체¹⁴⁰이다.

기독교사회복지는 교회성장을 위한 선교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불의한 세상 한 복판에서 일어나는 민중의 고난과 해방의 사건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한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사탄의

¹³⁸ 정길홍, 『사회복지개론』 (서울: 홍익제, 1999), 27.

¹³⁹ 이병진, 김덕환, “기독교사회복지사 훈련프로그램 개발,” (한일신학대학교, 디아코니아연구소 편, 기독교 사회사업 II (1997), 903.

¹⁴⁰ 야고보서 1장 27절

권세에 억눌린 ‘민중에 대한 해방과 치유와 새로운 공동체의 건설’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사회복지란 “민중의 해방과 치유와 바닥공동체 건설을 위한 믿는 자들의 공동체적이고 통합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협의의 의미를 보면 “치유”에 강조점이 있고, 광의의 의미로 보면 “해방”과 깊이 관련되며, 실천적으로는 “바닥공동체의 건설”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의 원리는 첫째, 인간 고통의 해소, 둘째, 인간의 자기결정권의 존중, 셋째, 인간의 존엄성 보장, 넷째, 인간의 평등 및 기회균등의 실현, 다섯째, 인간의 사회적 책임의 수행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의 다섯 가지 기본원리는 한 마디로 “사회정의와 실현”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정의란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이며 모든 인간에 대해서 동등한 배려, 동등한 애정, 동등한 기회와 책임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¹⁴¹

그러나 사회복지를 요구하는 상황자체가 마치 아무런 역사적, 사회적 원인이 없이, 진공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개인과 사회의 문제는 역사적으로 발생한 체제의 모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위의 다섯 가지 기본 원리가 존중되지 않거나 편파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사회적 관계가 심하게 파괴되어 있고,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사회복지 역시 이러한 체제적 모순의 한계 안에서 작동되고 있다는 한계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 사회복지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두 가지 개념 즉, 보충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을 넘어서서, 기존체제 안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과 방식을

¹⁴¹ 박태우, “성서에 나타난 사회복지상에 관한 연구”, 7-8.

채택하는 ‘대안적인 개념’ 을 포함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원인을 꿰뚫어보고, 이를 변화시켜야 할 당위성을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기초를 두기 때문이다.¹⁴² 이것이 사회의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려는 기독교의 사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독교적 사회복지의 목적 자체가 개인에 대한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구제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실현’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 속에서 기독교 사회복지의 이론을 정립하면 몇 가지의 주제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정리하고, 기존의 사회복지 이론과 실천의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창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¹⁴²⁾ 이삼열 외, 『기독교 사회복지의 사상과 실천』, (서울: 한울, 1992), 30-34.

IV 영성의 역할과 사회복지 실천

1. 영성과 사회복지 사정

사회복지 임상에서 사정이란 집단이나 개인의 안정된 상태를 방해하는 내적, 외적으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소를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 사정의 결과로 클라이언트의 처한 상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치료의 목적을 설정하며, 클라이언트의 자원과 힘의 근원을 알아냄으로써 적합한 개입 계획을 세운다.¹⁴³ 그러므로 사정과 개입은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

사회복지 문헌에는 개입은 물론이고 사정이 적합하게 검증되었거나 잘 설명되지 않고 있었다. 일찍이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영적 관심을 옹호해 오던 Susan Spencer는 전적으로 정신분석 이론에 의존하는 것을 반대하였다.¹⁴⁴ 다른 저자들은 사정방편으로 종교와 영성의 정신적 현상을 연구해왔다. Sanville는 사탄에게 사로잡히거나, 귀신 쫓아내기 등 귀신에 대한 경험과 관련해서 사정을 논하고 있다.¹⁴⁵ 반면에 Ikenberry는 인간 성장과 발달을 감정 전이, 최면일치를 임상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오는 정신 감응 현상의 면에서 사정평가를 해왔다.¹⁴⁶ 더 나아가서

¹⁴³ O. Hepworth, O. & J. Larsen, *Direct social work practice* 3rd Edition (Chicago: The Dorsey Press, 1986).

¹⁴⁴ S. Spencer, "Religious and spiritual values in social casework practice," *Social Casework* 57, 59-526.

¹⁴⁵ J. Sanville, J "Therapists in competition and cooperation with exorcists: The spirit world clinically revisited,"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3 (4), 286-297.

¹⁴⁶ J. Ikenberry, "Psi and our cosmic age,"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3(4), 316-330.

Berthold는 사회복지 문헌에서 연대별로 나타난 사정 방법에 사용된 영적 요소들을 광대한 목록으로 만들었다. 이 목록에는 영적(악령과 악한 마법사의 일을 포함한)이유로 오는 병의 근원들이 적혀있다.¹⁴⁷

종교와 영성에 관련된 성적 이슈가 사회복지 문헌에서 논의되어 왔다. 영적 성장과 개인적 발달은 성적인 면에서의 자아 존중과 관련되어 있다.¹⁴⁸

2. 영성과 사회복지 개입

사회복지사는 개입하는데 있어 영성의 본질을 정의하기 시작했다. Keefe는 ‘명상을 사회사업치료’의 한 방법으로 들고 있다.¹⁴⁹ 다른 저자들은 치료의 방법으로 기도에 더 주목하고 있다.¹⁵⁰ Canda는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기도의 방법을 제시하며 동남아시아인을 위한 불교계의 지원체계를 들고 있다.¹⁵¹

종교적 행위와 관련돼 용어를 개념화한 Laird는 종교적인 의식에 관한 개념을 정립했다. Laird는 종교적인 의식의 본질적인 기능은 같이 나눈다는 뜻을 반영하거나 표현하는 것이며, 이러한 종교적인 의식들이 치료방법으로 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¹⁵²

Canda와 Caraldo는 임상실천에서 샤먼의 개입을 사용하는 것을 제시하고, Berthold는 귀신 쫓아내기에 개입하는 것, 피해자에게 공격을 그치도록 영을

¹⁴⁷ S. Berthold, "Spiritism as a form of psychotherapy," *Social Casework*, 70 (8), 502-509.

¹⁴⁸ D. Helminiak, "Self-esteem, sexual Self acceptance, and spiritualit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7, 520-521.

¹⁴⁹ T. Keefe, "Meditation and social work treatment," In F. J. Turner, *Social Work Treatment*,

¹⁵⁰ E. Canda, "An holistic approach to prayer for social work practice," *Social Thought*, 16 (3), 3-13.

¹⁵¹ E. Canda & T. Phaobtong, "Buddhism as a support system for Southeastern Asian refugees," *Social Work*, 37 (1), 61-67.

¹⁵² J. Laird, "Sorcerers, shamans, and social workers: *The use of ritual in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29 (2), 123-129

설득하는 것, 악령의 영향을 제거하는 종교적 의식들을 설명하고 있다.¹⁵³ Bullis와 Harrigan은 성 문제 개입에 있어 종교적 심상과 성경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¹⁵⁴

Brower의 학위논문은 종교적, 영적 개입을 논하고 있다. 10-12명 정도의 응답자들에 관한 그녀의 연구는 영적으로 민감한 임상사회 복지사는 78명의 클라이언트 중 97%가 영적 요구에 개입하였다고 발표했다. 61명의 워싱턴 D.C.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녀 Joseph의 연구는 그녀의 응답자들도 자주 종교문제에 목회자와 협력하여 일한 것(18%)과 클라이언트를 위해 종교 단체를 이용한 것(35%)을 보고하고 있다.¹⁵⁵

Canda는 종교/영성문제에 관해서 쓰거나 연구한 18명의 사회 사업 저술가들을 전화로 면접했다. 그는 영적으로 민감한 임상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진단을 열거하느라 바쁘기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일상 사건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것을 발견했다.¹⁵⁶

Krassner는 대중을 위한 치료자들이 여러 가지 영적 요법을 사용한 것을 알아냈다. 이러한 요법은 병명에 문화적 신비를 나타내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또 다른 개입은 클라이언트에게 그들을 기대하고 바라며, 믿게 되는 동기를 주는 것이다. 끝으로 Krassner는 치료자가 그 병의 특정한 치료법을 종교적 의식에 통합시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¹⁵⁷

¹⁵³ S. Berthold, "Spiritism as a form of psychotherapy," *Social Case Work* 70 (8), 502-509.

¹⁵⁴ R. Bullis, "Psychologists and the mystical process," *Journal of Contemporary* 22 (1), 43-49.

¹⁵⁵ I. Brower, "The 4th ear of the spiritual-sensitive social worker." Ph D. dissertation, Union for Experimenting Colleges and University, Microfilm International No. 8500785.

¹⁵⁶ E. Canda, "A conceptualization of spirituality for social work," Ph D. dissertation, Ohio University (1986).

¹⁵⁷ M. Krassner, "Effective features of therapy from the healer's perspective: A study of Curandreismo," *Smith College Studies in Social Work* 56 (3), 157-183.

Sheridan, Bullis, Adcock, Berlin과 Miller는 세 종류의 전문 정신건강 단체의 대다수가 종교적, 영적 개입을 그들 클라이언트에게 사용하는 것과 다른 종류의 임상위커들이 다른 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알아냈다. 표본 전체의 59%가 종교적, 영적인 언어와 개념을 사용했고, 70%가 종교적, 영적 가치를 명백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88%는 클라이언트를 자립시켜 주는 그룹에 소개해 주었다.¹⁵⁸ 영성의 가치관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영성에 관련된 가치는 서구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영적 치료로부터 시작된다.

3. 사회정책에서의 영성과 치료: 역사적 관점

이 부분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서구 사회복지실천에 가장 영향을 끼친 문화에 영성이 역사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영성이 클라이언트들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또는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은 처음 치료자들이 아니다. “심리요법(특히 최면술에 의한)의 역사”의 첫 문장은 “역사에 나타난 순서대로 정신 치료자들을 환자의 침대 곁에 불러 드린다면 마술사나 주술사가 맨 먼저 대답할 것이다. 라고 쓰여 있다.¹⁵⁹ 또한 이 장은 다른 서구 문화에 영성이 어떻게 개인이나 사회적 치료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조사한다. 이 부분에 이어서 이러한 예증은 요즈음 사회 복지실천과 관련되어 검토될 것이다.

(1) 고대 수메르와 바빌론

¹⁵⁸ M. Sheridan & R. Bullis, C. Adcock, S. Berlin & P. Miller, “Serving diverse religious client populations: Issues for social work education and practice,”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28 (2), 190-203.

¹⁵⁹ J. Ehrenwald, ed. *The history of psychotherapy* (Northvale, NJ: Jason Aronson Inc, 1991).

이것은 수메르(유프라테스강 어귀의 옛 지명) 사람의 찬송가이다. 이마도 기원전 2~3백년에 쓰인 것으로 신 나누르타(Ninurata)를 찬양하는 시이다. 이 신은 곡식과 풍부의 신이며 전쟁과 파괴의 신으로 숭배되어 왔다. 이와 같이 모순되는 신의 속성을 가지는 것은 보기 드문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니누르타 신의 곁으로 나타나는 역설은 삶과 죽음의 신이, 모든 탄생은 죽음을 가져오며, 죽음은 새 생명의 기회가 된다는 설에서 생겨난 것이다.

생명을 주는 정액, 생명을 주는 씨앗. 엔틸(Entlil)에 의해서 선언된 왕이시여, 생명을 주는 정액, 생명을 주는 씨앗, 엔틸에 의해서 선언된 나누르타 신 나의 왕이시여,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리다. 나누르타 신, 나는 당신의 것, 당신의 것.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리다.

간단하게 써졌지만 이 찬송가의 세 가지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신의 이름의 중요성이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신이나 여신의 이름을 선언하는 것은 신의 존재 자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신을 불러일으키는 자체가 신이나 여신을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신이나 여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신의 존재를 부르는 것이다. 둘째로 신이나 여신의 이름에 모든 필요한 신성이 다 포함되어 있다.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신의 치료와 파괴의 힘까지 포함한 신성의 특정한 성격을 다 부르는 것이다. 신의 진짜 이름은 종종 신이나 여신의 제사장 이 자기의 것으로 간직하고 빼앗지 않으려고 엄중하게 비밀로 지켜졌으며, 아주 드물게 알려졌다. 신의 이름은 영적 치료와 완전케 되는 데에 중요한 특색으로 삼았다. 홀로 숭배받기를 원하는 신은 이러한 원동력이 되는 힘이 잘못 사용되는 것을 경계하였다.¹⁶⁰

¹⁶⁰ J. Priychar, *The ancient near East (Vol. 2)* (Princeton, NJ: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구약의 모세가 호렙산에서 “스스로 있는 자” 와 만나는 이야기의 참 뜻은 다른 신을 믿는 것을 용서치 않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데 있다.¹⁶¹ 하나님은 모세에게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해방시키도록 지시한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이 “신의 이름이 누구인가?” 물어볼 경우 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그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요구한다.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문자 그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라고 선언한다. 학자들은 아직도 히브리어의 선언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히브리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이나 주님 등 좋게 들리는 말을 사용하며, 더 음성학적으로 옳은 여호와(Jehovah, 라틴어)나 야훼(Yahweh)로 부르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름에 있음으로 조심스럽게 지켜져야만 한다. 이름을 함부로 불러 영적 힘과 장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아는 것은 신에 대한(혹은 사탄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에 있는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는 권한을 주셨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아담은 동물들을 지배한다. 이와 같은 개념을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글자 그대로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라는 뜻)의 치료사역을 통해 볼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치료가 되는 것이다.

(2) 구약성경(The Old Testament)

구약은 유대교의 경전이다. 이것은 상당히 여러 다른 종류의 문헌을 다루고 있다. 역사책들(출애굽기, 사사기, 역대기), 시 시편, 법전(신명기, 레위기),

¹⁶¹ 출애굽기 3장

예언서(이사야, 예레미야, 요나) 등이 있다. 다음은 예언서에서 뽑아낸 간단한 구절이다. 미가는 노동자 계급의 한 사람이다. 남쪽 유다 왕국이 강대한 앗수르 제국의 침략의 위협을 느낄 때이다.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사회적 안전이 정의, 자비, 영성에 헌신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미가는 정치적, 종교적 위선을 통렬히 비난하며 본질적인 영적 추구를 주장한다. 그는 냉소적으로 말한다.¹⁶²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만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의 경고는 구약시대의 사회 가치관의 요점을 보여준다. 구약에서의 공의는 가난하고 억압당한 자들을 위한 사회 정의를 말한다. 자신의 생계를 더 이상 꾸려 갈 수 없는 과부와 외국인들을 위한 정당성과 자비를 말한다. 남 왕국 미가시대의 가난하고 압제 받는 자들을 위하는 것은 종교적 의식이나 예배형식을 엄수하고 지키는 것보다도 큰 의미가 있다. 미가에게는 영성이란 종교적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닌 사회적, 정치적으로 건강한 사회구조를 이루는데 필요한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영성은 사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사회 가치와 사회복지가 영적인 것과 융합되어 있다.

¹⁶² 미가 6:7-8

(3) 아나톨리아(Anatolia: 옛날의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위대한 그리스 여신은 여러 다른 시대에 여러 다른 장소에서 여러 다른 이름으로 불려져왔다. 키벨레(Cybele), 케레스(Ceres), 그리고 텔루스어머니(Tellus Mater; 땅의 여신)로 알려져 왔다. 어떤 경우에는든 주요 주제는 땅의 산물과 다산의, 특별히 곡식의 재생산이다.¹⁶³ 이 여신은 아마도 소아시아(Anatolia)에 근거를 두었으며 기원전 336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정복되고 그 후에 로마에 의해서 정복되면서 희랍과 로마 문화에 섞어졌다. 다음의 기도는 서기300년 로마에서 키벨레(Cybele)에게 바치는 예배 이미지를 그렸다.¹⁶⁴

“거룩한 여신이지여, 땅과 자연의 어머니지여, 생명을 가져다주고 매일 매일 소생시키시는 자지여, 당신의 생명의 양식은 영원한 신뢰를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 영혼이 지칠 때 당신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언젠가는 당신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이 기도는 아주 상징적이다. 이 여신은 모든 생명의 어머니이며 모든 자양물이(육체적, 정서적, 영적) 그녀에게서 온다고 확신하는 기도다. 죽는 경우에도 여신은 생명을 부여해 소생시킨다. 사실상, 여신에게는 자지 않고 늘 깨어있는 상태에서 삶과 죽음이 그녀의 우주적 품에 안겨있는 한 아이에 불과하다. 이미지와 상징이 영적 언어를 말해준다. 영성은 아주 풍부한 이미지와 상상으로 표현되거나 불려진다.

종교적 의식은 ‘움직이는 상징’으로 치료와 영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식은 사회적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키벨레와 관련된 의식과 예식은

¹⁶³ A. Baring, A. & J. Cashford, *The myth of the goddess: Evolution of an image* (New York: Viking Arkana, 1991).

¹⁶⁴ M. Vermaseren, *Cybele and Attis* (London: Tr. Lemmers, 1977).

극적이며 경건하며 희생적이다. 로마의 의식들은 성적이며 환각적이다.¹⁶⁵ 이것은 키벨레는 숭배하는 도중에, 숭배자들이 몽환의 경지로 이끈 예식과 피를 흘리는 세례식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4세기경, 냉소적인 라틴 시인까지도 이러한 희생 태도를 열거했다. 제사장은 희생 제물로 바쳐진 황소나 수양이 있는 특별히 지정된 구덩이로 내려온다. 동물들은 이마에 금으로 장식되었고 허리에 금 고리를 둘렀다. 성스러운 단도가 동물의 동맥을 찌르면 쏟아져 나오는 피로 제사장은 목욕을 하였다.

“제사장은 그의 머리에 떨어지는 피 방울을 받는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의 조끼를 피로 적신다. 그의 온 몸을 핏덩이로 바르고, 뒤로 체쳐 그의 얼굴을 나타낼 때 그의 입과 볼에는 붉은 피가 흐르고 있다. 그의 눈은 흐르는 핏덩이로 씻겨지며 그의 혀를 적서 맛을 본다. 황소의 속 피가 그를 깨끗이 한다.”

375년도에 새겨진 비문에는 이 경험을 통하여 숭배자들은 “영원히 다시 산다.” 고 적혀 있다.¹⁶⁶ 재생은 변화된 강력한 이미지이며 완전한 자아(지적, 정서적, 영적, 육체적)의 소생이며 건강한 사회를 위한 이미지도 된다. 황소나 수양을 죽이는 예식을 통해 심리적으로 숭배자는 새로운 자아, 그 자신의 새로운 일면을 경험한다. 세례식은 이러한 변화에 사용되는 또 하나의 용어이다. 씻고 깨끗이 하는 예식은 여러 영성 실천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특징이다.

¹⁶⁵ A. Baring & J. Cashford, *The myth of the goddess: Evolution of an image* (New York: Viking Arkana, 1991).

¹⁶⁶ M. Meyer, *The ancient mysteries: A sourcebook*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7).

(4) 고대 희랍(Ancient Greece)

고대 희랍의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Asklepios)를 숭배하는 근원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중앙 사원은 아드리아 바닷가에 있는 이디다우로스에 위치하고 있지만 다른 사원들은 희랍 전역에 널리 있다. 치료의 효과는 종종 사원에서 숙식하며 치료가 되는 꿈을 꾸는 환자들에게서 나타났다. 치료를 통해 나온 환자들은 대리석 조각에 그들의 치료과정에 대한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관습으로 되어왔다. 4세기에 적혀진 다음의 두 경우는 이같이 남겨진 기념물을 직역한 것이다.¹⁶⁷

“아텐에서온 암브로시아는 한쪽 눈만 성하다. 그녀는 신에게 탄원하러 왔다. 그녀가 치료의 상원을 둘러봤을 때 절름발이나 장님이 꿈을 봄으로써 치료되는 믿을 수 없고 불가능한 이야기들을 읽고 속으로 비웃었다. 어느 날 누워 있다가 그녀는 환상을 보았다. 신이 그녀의 옆에 서서 그녀를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비웃었기 때문에 그 값으로 은으로 만든 돼지를 사원에 받쳐야 된다고 말했다. 이런 말을 듣는 중에 신은 못 보는 병든 눈을 찌고 약을 넣어 주었다. 바로 그때 그녀는 두 눈으로 볼 수 있었다.”

암브로시아의 보고서는 3가지 주제를 밝혀 두는데, 첫째, 회의적인 요소가 분명히 기록 되어있다. 둘째, 치료를 기념하는 제물을 받치도록 지시를 받았다. (선물을 바치는 것은 영 적 치료를 통해 단합하고 구체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셋째, 암브로시아가 전혀 모르고 있던 진단과 치료 방법을 사용했다.

“한 손의 한 손가락 외에는 모든 손가락이 구부러진 남자가 신께 탄원하러왔다. 그러나 사원에서 기념패를 보고는 치료될 것을 전혀 믿을 수가

¹⁶⁷ D. Cartlidge & D. Duncan, *Documents for the study of the gospels* (New York Collins, 1980).

없었고 새겨진 글에 대해서는 빈정거렸다. 그는 자는 동안 환상을 보았다. 사원 밑에 있는 토굴에서(치료될 것을 짐치는 것처럼) 그 자신이 납골소에서 뼈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가 뼈를 다시 던지려고 할 때 신이 나타나서 그의 상한 손을 덥석 잡았다. 한 손가락씩 펴준 후에 신은 아직도 사원 기념패에 새겨진 글들을 믿지 못하겠는가를 물었다. 그는 “아니요, 믿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아스클레피오스 신은 네가 전에 믿기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지금부터 ‘의심하는 자’ 라고 불려질 것이라고 명했다. 그 날 이후 그는 건강해졌다.”

이 치료에서도 꿈이 매개체가 되고 있다. 이번에도 신이 꿈꾸는 자에게 직접 나타나서 만지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치료하였다. 신은 이 남자의 손을 잡고 못쓰게 된 손가락들을 쪽 잡아 폈다. 암브로시아의 경우에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은 눈을 찌고 뭔가를 부었다. 이 둘의 경우를 보면 기념물들은(암브로시아에게는 은으로 만든 돼지를, 남자에게는 새 이름을 준 것) 전에 의심한 것에 대한 참회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의심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다, 더 이해하기 쉬운 해설은 이런 기념물들이 자기 자신에게 치료될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4. 고대 영성과 사회복지실천

앞에 열거한 영적 경험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 심리적 유물만은 아니다. 고대의 영적 경험은 현대 사회복지사와 다른 정신 건강 임상자들에게 치료와 건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사실상 희랍어 ‘거룩’ (holy)과 ‘건강’ (health)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희랍어 “holos” 의 뜻은 전체적이고 완전한 것을 의미한다. 현재 이 말은 영어에서 거룩하고

건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참된 건강은 참된 거룩함을 요구한다. 그래서 온전한 치료가 있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들은 그들 생활에 거룩함과 전체성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한다.

참된 건강은 아픈 증상이 없어진 것만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뜻한다. 클라이언트는 그들 생활의 재생을 찾는다. 클라이언트는 이 재생을 위해 큰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을 안다. 희생과 죽음과 부활의 값을, 앞부분에서, 희생의 이미지는 미가의 예언서에서 볼 수 있고 죽음과 부활의 이미지는 수메르(Sumer)에게서 볼 수 있으며, 극적인 키벨레(Cybele)의 세례는 심리적 건강과 치료를 위한 영적 요소가 되었다. 아스클레피오스 사원에서 장님이 치료되어 다시 보게 되는 것은 영적 개입에 의한 육체적 정서적 치료의 주요한 예증이 되고 있다.

정신건강은 영적 건강과 협력하여 일한다. 어느 한도까지 영적 건강은 정신건강을 보충시키며 정신건강은 영적 건강을 보충시켜 치료가 더 완전해진다.

(1) 신약성경: 누가복음

예수의 치료사역에 대해 누가는 그 고전적 정통 이야기에서 사탄에 걸려 괴로워하는 게라인(Guessable)사람에 관해 말하고 있다. 괴롭힘을 당하는 이 사람은 발가벗고 집도 없이 도시 밖에 있는 무덤사이에서 살았다. 처음에 이 사람은 예수를 피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있나이까?” 그러나 예수는 끈질기게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이름을 물었다. 사탄은 ‘많은 귀신들이 들렸으므로’ ‘군대’ 라고 대답했다. 이 이야기는 깊이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게라인 사람의 병은 영(sprints), 이 경우는 악령에 의해 생겼다. 당시 육체적 정신적 병의 요인을 사탄에게 돌리는 개념이 널리 퍼지고

있었다.

서구 의학은 영이 병의 원인이 된다는 개념을 버렸지만 많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은 영이 온전한 건강 상태에서 빠질 수 없는 한 부분으로 생각한다. 영에 대한 중요한 임상적 가치는 엄밀히 영이 무엇이고, 무엇이 영이 아닌지에 달려있다. 영(spirit)은 라틴어 *spiritful*에서 오며 뜻은 바람과 숨(호흡)이다. 영어의 숨을 들이쉬(*inspiration*)과 어떤 사상 감정을 등을 불어 넣다(*inspire*)는 같은 어원에서 온다. 그래서 영이란 고무시키거나 생기를 주는 것을 뜻한다. 영은 생명을 주며 호흡을 주는 것이다. 임상적으로, 영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신념, 자기 자신에게나 생기를 주는 신념은 그의 목적과 삶에 큰 영향을 준다.

(2) 키슈 마야(Quich Maya)

키슈 마야는 현재의 멕시코의 유카탄(Yucatan), 과테말라(Guatemala), 벨리즈(Belize), 온두라스(Honduras)에서 성행했다. 그들의 문명은 최대의 기술적 영적 정교함을 이루었다. 예를 들면 NASA(미국 항공 우주국)는 마야인의 달력이 천년마다 15초 이내의 정확성을 가진 것을 계산해 냈다. 그들 문명의 잔해가 발견되었으며 고도의 정밀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이 유산을 세밀하게 말해주며 보존해주는 기념탑이 아직도 있다.

Chichen Itza에 있는 El Castillo라고 부르는 귀중한 마야인 피라미드는 밑에서 꼭대기까지 일 년 365일을 상징하는 365개의 층계로 되어있다. 마야의 제사장은 땅에서 하늘로 가는 보통 의식의 영역에서 신성한 의식의 영역으로 가는 여정을 상징하는 층계를 걸어 올라갔다. 안쪽 층계로 들어가면 피라미드 안의 방으로 갈 수 있다. 이 방에서 제사장은 아직도 채규어(중남미산 표범) 왕좌가 그대로 있는 신비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마야 문화의 성스러운 책 Popol Vuh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Popol Vuh를 직역하자면 ‘공동체를 위한 책’이다.¹⁶⁸ 저자는 ‘재연합의 책’이라고 의역해 본다. 마야 신화에 의하면 Popol Vuh는 마야를 그들의 문화역사, 전통과 ‘재연합’ 시키며 그들 자신의 영적 전통과도 재 연합시킨다. 이 책은 16세기에 키슈마얀(Quiche Mayan)이 썼고 17세기에 스페인어로 번역되었다. 이 성스러운 책은 인간이 여러 실패를 거쳐서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와 저승 지배자가 어떻게 마법과 이적에 의해서 참패를 당했는지를 말해준다.

Popol Vuh는 야심 많고 자기중심주의의 부큐-카키스(Vucub-Caquix)라는 지배자가 어떻게 후나푸와 볼란큐라는 두 명의 청년 마술사에게 속임을 당했는지를 말해준다. 볼란큐라는 이름을 직역하면 ‘작은표범’ (little jaguar)이지만, 그가 작은 마법사라는 칭호로 더 알려진 것은 마야 문화는 수영을 잘하고, 잘 뛰며, 오르기를 잘하는 표범을 아무 거침없이 다른 세계와 다른 의식 세계를 오고 가는 것과 일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글은 부큐-카키쓰가 어떻게 마야 사람의 영적, 사회적 가치와 표준을 범했는지를 묘사해준다.

나는 해가 되며 달이 되오. 모든 인간에게. 아주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라고 부큐-카키쓰는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해가 아니다. 그는 단지 허영심이 강한, 옷 잘 입는 부자일 뿐이다. 그는 온 세상을 볼 수 없으며 수평선까지만 볼 수 있을 뿐이다.

부큐-카키쓰의 지나친 오만함은 마야의 사회적 가치와 행실에 대한 윤리적 요소 뿐 아니라 생태적인 영적 요소를 말해준다. 그는 금(변하지 않는 것의 상징)을

¹⁶⁸ D. Goetz & S. Morley, *Popol vu. (Norman, OK: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50).*

영원 불멸하며 의식을 초월한 자체로 잘못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그가 멀리(장래와 인간의 마음속까지)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미혹시킬 만큼 악인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힘에서 떨어질 만큼 죄인이 아니다. 지나친 자신감과 비뚤어진 영적, 사회적 기능을 고치는 것은 영적 세계와의 사면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마야의 전통적인 치료는 영적 결과를 가져오는 일상생활의 원인이 되는 요소와 영적 개입을 통합하여 되어졌다.

5. 건강과 완전함에 관련된 영적 테마

사회복지의 근본적 가치는 “모든 사람의 독자성, 가치성, 존엄성뿐 아니라 권리와 기회” 를 포함한다.¹⁶⁹ 전미사회복지사협회 윤리강령 서문에 적혀 있는 이 말의 뜻은 개인 자신의 영성을 포함한 개인에 속한 모든 것이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구절은 또한 종교적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잘 보호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 구절은 또한 종교적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잘 보호되어 있음을 확실히 보여준다. 이 종교적 권리(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헌법으로 보장된)란 정부의 제한 없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런 헌법적 배려는 4장에서 다루어진다. 미국 정부와 주 정부의 헌법으로 보장된(전미사회복지사협회 윤리강령의 서문에 인정된) 신앙적 권리는 자신의 결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영적 권리와 사회복지사에게 신앙을 발표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신의 신앙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러한 주제가 앞으로 계속 검토된다. 첫째로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영성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전망을 주고 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전망은 의학적 치료

¹⁶⁹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s, *Code of Ethics* (Silver Spring, MD: Author, 1990).

모델과는 뭔가 잘 맞지 않는다.

의학적 모델과 영적 모델의 다른 특징을 잘 인식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복지사는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한 모델을 채용한다는 것은 클라이언트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델이 아닌 사회복지사 자신의 모델로 클라이언트를 몰아넣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사용하는 모델을 잘 알아서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는지 사회복지사 자신의 요구에 맞는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둘째로 워커는 클라이언트에게 적당한 모델을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어느 모델이든지 습관에 의해서나 할 수 없이 적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두 모델의 특징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워커가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워커가 습관이나 기계적인 것보다 이런 선택에 의해서 클라이언트를 보다 더 잘 도와줄 수 있다. 워커가 영적 사정이나 개입을 기계적으로 사용할 때 이루어고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영적 모델은 인류학의 다양한 차원을 인정한다. 영적 모델은 인간이 육체적, 정서적, 지적, 직관적, 신비적 등의 탁월한 특질을 가진 것을 인정한다. 의학적 모델은 육체적, 약간은 정서적, 지적 등 제한된 차원을 가진 것을 인정한다.

사회복지실천에서 워커가 어느 정도까지 의학적 모델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의학적 모델은 특별히 클라이언트가 영적 문제를 의논할 때는 그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영적 관점은 사회복지의 사정과 개입에 정보를 제공하고 영향을 준다.

의학적 모델과 영적 모델의 다른 점이 강조되었으니까 이제는 의학적 모델이 개인과 사회에 크게 혜택을 준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의학적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치료과정에 있어 늘 보완해주는 없어서는 안 되는 파트너 역할을

해왔다.

6. 영적 주제와 사회적, 문화적 배경

신화와 종교적 의식, 관습은 영적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적 자료가 된다.

신화는 영적 사실이다. 신화는 지역사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종교적 의식은 신화를 행위로 표현한 것이다. 종교적 의식은 신화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희랍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는 자신의 신화를 창조하고 이에 따르는 의식을 만들었다. 신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아스클레피오스는 꿈속에서 했다.

신화와 의식이 같이 사용되고 있고, 널리 행해지고 있는 예로 영웅 추구를 들 수 있다.¹⁷⁰ 이러한 모험담의 주요소는 3가지 주제 즉 분리, 입회, 복귀로 구성된다. 영적 치료에 나타나는 주제와 비슷한 이 주제들은 영웅이나 여걸의 모험담을 담은 신화에 나타난다. 사회복지사가 영적 사정 평가와 개입을 사용할 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자신이 영웅이 되어 모험 속으로 지나가 보도록 인도한다. 분리는 모험가가 정상세계로부터 떨어져 나감을 뜻한다. 분리는 모험가 자신의 선택일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되기도 한다. 정신적 혹은 육체적 병, 이혼, 사랑하던 자의 죽음, 직장을 잃은 것 등이 모든 것이 이러한 분리를 가져온다. 입회는 모험가가 영적 세계로 들어감을 기념하는 의식이다. 모험가의 복귀는 정상적 의식 상태나 평상시 환경이나 정상 위치로 돌아옴을 뜻한다. 이런 복귀를 통하여 모험가는 지역사회에 가치관이나 치료 방법 또는 혜택을 가져온다. 이 모험은 클라이언트에게 실제적인 능력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가

¹⁷⁰ Campbell 1949

클라이언트에게 강제로 모험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클라이언트 자신이 혼자 모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입회하는 힘이나 견디는 힘, 여정을 완성하는 힘이 모험가 스스로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는 이런 영적 여정에서 심리적 활력소의 일을 한다.¹⁷¹

전통적으로 이런 역할은 성스러운 행렬을 이끄는 제사장들이 해왔다. 지금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영적 모험 여행을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병에 걸렸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인도해 내므로 ‘정신건강 활력소’로 불려진다.

¹⁷¹ Ronald K. Bulls, *Spirituality in Social Work Practice*, 51.

V 영성과 기독교 사회복지와의 관계성

1. 성경적 관점

사회복지활동과 영성의 관계에 관한 가장 좋은 성서적 설명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약 1:23)”¹⁷²는 말씀이다. 이 간단한 성구에서 대신(對神)관계 즉 영성과, 대(對)클라이언트관계,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의 대자아(對自我)관계가 설정되어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영성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돌보고, 동시에 자신을 세속적 현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성서에서 최고의 영성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깊은 영성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짧은 공생애 가운데에서 그분은 약한 자와 병든 자들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다.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꺼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씀하셨다.”¹⁷² 예수님 뿐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영성이 깊은 경건한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사회 복지적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구약의 율법적인 규칙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등과 같은 규정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동시에 휴식을

¹⁷² 최봉기,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길』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9), 63.

누리고 연계 하는 구조적 장치였다.¹⁷³ 다시 말하면 율법이 영성적인 요소와 사회복지적인 요소가 결합된 삶의 양식이라는 것이다. 참된 안식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항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오늘의 현실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느끼고 명상하는 영적인 삶은 휴식과 여가의 삶을 누리는 복지적 혜택임에 틀림이 없다.

2. 역사적 관점

교회사의 전통을 들여다보면 기독교의 영성은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된다. 영성의 위인들을 살펴보면 기도와 명상, 성결한 생활, 성령과 은사, 복음전도, 성육신, 그리고 사회봉사와 정의에의 거룩한 헌신들이 있었다. 특히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일곱 집사, 제노아의 캐더린, 빈센트 드 폴, 로저 윌리엄, 요한 울만, 수잔 안토니, 알버트 슈바이처, 도로시 데이, 테레사, 마틴루터 킹, 장 바니에, 그리고 헨리 나우웬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사회봉사적 영성의 전통을 소유하고 있다.¹⁷⁴

이러한 기독교의 사회봉사적 전통은 한국교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상재, 안창호, 이승훈, 조만식, 손양원, 김재준, 함석헌, 김용기, 장기려, 문익환, 한경직 등을 비롯한 수많은 사회정의와 봉사적 전통을 따르는 영성의 인물들이 나타났다. 이런 인물 한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수백 개의 봉사프로그램이나 사회복지사업보다도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¹⁷³ 김창모, 『생명과 영성의 치유윤리』 (서울: 한들출판사, 2003), 112.

¹⁷⁴ 최봉기,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길』, 69-77.

현대 영성의 대표적인 인물이 테레사 수녀라면 그녀는 동시에 사회 복지적 삶을 살아간 사람의 대가이기도 하다. 그녀는 “기도는 신앙을, 신앙은 사랑을, 그리고 사랑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봉사를 낳는다” 라고 말한다.¹⁷⁵ 몰트만이 주장했듯이 구원은 결과의 문제일 뿐 아니라 과정의 문제이기도 하다.¹⁷⁶ 테레사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나환자들의 몸을 만지고 악취 풍기는 사람의 몸을 만질 때, 예수님의 몸, 성체성사를 통하여 받아들이는 그분의 몸을 만진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절대 그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¹⁷⁷ 예수님을 만지듯이 나환자들의 몸을 돌보는 수녀의 모습을 상상한다면 영성이 담긴 봉사가 얼마나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봉사적 영성의 흐름이 한국교회의 주류를 이루지는 못했다는 것이 한국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왜곡된 이원론과 은사론, 축복론, 말세론, 그리고 교회성장 이데올로기가 교회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진정한 영성은 빈곤해지고 말았다. 그리고 점차 기독교의 힘도 약화되었다. 영성의 사회복지를 향한 접근은 한국교회의 체질을 개선해야하는 기독교 사회복지인들의 과제이기도 하다.

3. 신학적/철학적 관점

기독교 영성의 가장 중요한 모델은 십자가라고 할 수 있다.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완결편이다.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과 순종의 완결편이 된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이 십자가가

¹⁷⁵ 호세 루이스 곤잘레스, 『마더 테레사, 말씀』 황애경 역, (서울: 디자인하우스 1997), 130.

¹⁷⁶ Juergen Moltmann 『하나님 체험』 전경연 편, (복음주의 신학총서, 한신대학출판부, 1982), 72.

¹⁷⁷ 호세 루이스 곤잘레스, 『마더 테레사, 말씀』, 158.

부여된 것이다. 이 십자가는 대신관계 즉 영성의 가장 완전한 표현임과 동시에 대인관계 즉 사회 복지적 활동의 완전한 모델이기도 하다.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 클라이언트 중심, 감정이입, 자기결정, 타인수용, 그리고 비심판적태도는 사회복지의 기본적 원칙을 집대성한 것이었다. 이러한 십자가의 영성을 받아들이는 사회복지사는 앞에서 이미 제시한대로 사회복지윤리와 가치에 충실한 전문가적 품성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은 부활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종말론적 관점에 있어서 부활과 내세에 대한 확신은 현실에 있어서 타인에 대한 절대적 헌신과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 기독교의 부활과 생명의 영성은 몰아(沒我)적 사회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중요한 전통으로 가지게 하였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음 같아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또 그 편이 훨씬 낫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있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은 이 부활적 영성은 이 땅 위의 생애를 이타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영성은 결코 애매모호하지 않다. 영적 실재(實在)는 내재적인 동시에 초월적이며, 개인적인 동시에 현실적인 삶의 표현을 기대한다는 데에서 역동적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내적으로 인식되고 경험되면, 그것은 현실적인 삶을 통해서 밖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밖으로 표현되는 삶은 윤리적인 삶이요 봉사적 삶이면서 사랑과 겸손과 믿음의 삶이기도 하다.¹⁷⁸

¹⁷⁸ 최봉기,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길』, 121, 209.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영성과 사회복지와의 관계를 정리,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로 영성의 삶 자체가 복지적이다. 사람이 깊은 영성을 갖게 되면 마음의 휴식과 평화, 정화(Catharsis), 의미와 희망의 발견, 재구조화(reframing) 등의 다양한 내적 기능을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적 적응기능들은 외적으로 파괴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억제하며 윤리적이고 가치지향적인 행동을 추구하게 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협력하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복지에 크게 영향을 준다.

둘째로 영성은 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영성적인 삶은 희생, 헌신, 나눔, 섬김의 성품을 갖게 하고 사회복지를 향한 소명을 의식하게 됨으로 사회복지 활동자로서 반드시 필요한 강열한 동기를 갖게 한다.

셋째로 영성은 복지활동의 구체적인 도구가 된다. 영성은 사회복지 전문 관계에 필요한 감정이입이나 온정, 인내를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 경청, 정직, 클라이언트에 대한 존중, 수용, 정의와 용기에 대한 확신 등 방법적 도구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도나 말씀을 통한 조언 등 영적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VI 영성적 사회복지 실천의 방법

사회복지의 임상적 전문가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 실천과정에서 과연 영성적 접근을 할 수 있는가? 만약 영성적 접근을 한다면 어떻게, 누구에게 해야 할 것인가? 등의 질문들은 반드시 응답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과학문명이 최고조로 발달한 서구사회에서조차도 영성의 영역은 무시되지 않는다. 최근 Gallup에서 실시한 사회조사에 근거하면 미국의 대중들이 정치적, 경제적, 정서적 위기를 맞이하는 시기에는 영적인 추구가 더욱 강렬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⁷⁹ 그렇다면 삶의 위기와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임상사회복지/사회사업 현장에서 영성적 접근을 배재할 이유는 없다. 신비스러운 경험을 많이 하였던 칼 융은 영적인 이슈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그는 “중년의 위기 이후에 분석을 받기 위해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인생의 전반기에 영적 이슈들을 무시해온 사람들” 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영성적 접근은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시적 차원에서는 임상적 상황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 실천되는 영적인 관여를 말하는 것이고, 거시적 차원에서는 사회복지실천에 영적인 개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직적이고 문화적인 실천을 논하는 것이다.

¹⁷⁹ Jason Bartlett, “Americans Filled with Spirit, Survey Finds”

1. 미시적 접근: 클라이언트의 영성에 대한 임상적 관여

임상적 도움과정에 대한 영성적 접근은 사실 오래 전부터 시도해 왔었다. 교회를 중심으로 실천되어 왔던 목회적 돌봄(pastoral care)이나 치유목회, 또는 기독교상담 등은 물론이거니와 프로이드와 아들러를 이어 비엔나의 제 3학파로 불리는 빅토 프랭클의 의미치료(logotherapy)의 이론과 실재는 영성적 접근에 많은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들은 영성적 실천에 대하여 실험적으로 입증하거나 결정되어진 바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만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클라이언트와 연대하기(Engaging with Client)

효과적인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워커를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클라이언트는 워커가 자신의 상황과 문제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으며 돌보아 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해야만 한다. 쉽게 말해서 존중된다는 것은 하나의 의미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흔히 노숙자들은 노숙자라는 특징외의 모든 다른 특징은 상실되고 만다. 이는 돌봄과 존중됨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임재의 사역의 중요성이다. 결국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성서적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을 공유함으로써 진정한 원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2) 통합적 사정(Holistic Assessment)

사정이란 개인의 상태와 환경을 평가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거나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통합적인 사정이란 전체적 환경(whole environment)

속에서 전체적 인간(whole person)을 이해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사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환경속의 인간(PIE)’ 이란 개념에서는 흔히 문화와 신념의 문제는 생략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문화적 신념체계 그리고 문화적 기대행동은 사람의 생각, 습관, 기술 등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정은 단순히 어떤 신앙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 참여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문제에서 더 나아가 그 공동체가 사람의 행동과 사고에 영향을 주는 내용까지도 파악되어야 한다.

(3) 능동적 경청(Active Listening)

사회사업가들은 점점 더 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으로부터 그/그녀에 대한 이해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클라이언트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삶에 어떻게 의미들을 부여하고 만들어내는가를 알아내는 것은 중요하다. 능동적 경청의 과정에서는 워커의 의도적인 투영과 격려, 질문, 정서이입적인 공감 등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자기표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돕는데 영성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문제가 노출되는 경우 보다 적극적인 경청을 함으로써 영적 영역에 대한 부분을 보다 밀도 있게 다루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화의 과정에서 영성적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과거의 생애주기 속에서 종교적 활동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를 살펴서 오늘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클라이언트의 말에서 영성적인 인식이 그 생활의 중심에 있는지, 신앙적 공동체에 참여하는 양상은 어떤지 등을 진지하게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세계관과 이 세상의 삶의 방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찾는다. 그리고 세상의 안전에 관한 인식, 창조주에 관한 신념, 자아에 대한 관점 등이 흔들리거나 허물어질 수도 있다.

(4) 개방형 질문을 통한 사정

“그것에 대하여 좀 더 말해주시겠습니까?” 와 같은 형태의 개방형 질문은 클라이언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자기결정의 기회를 부여하며,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강조할 수 있게 한다. 진실한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는 경우에 개방형 질문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대한 전문가 역할, 자신의 꿈과 세상을 상대하는 방법들에 대한 독특한 개인으로서 지위를 얻게 한다.¹⁸⁰ 개방형 질문들을 통해 영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힘과 자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말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영적, 종교적 부분의 특징적인 신념이나 신앙공동체의 참여 내용을 설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은 무엇이지요?” 또는 “무엇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하게 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통해 영적 신념과 종교적 행위들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질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누가 또는 무엇이 희망이나 힘을 당신에게 제공하는가? 무엇이 당신에게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가? 무엇을 하기 위하여 당신은 매일아침 침상에서 잠이 깨어 일어나는가?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큰 힘의 원천인가? 당신의 희망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무엇이 당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가? 당신은 무엇을 희망하는가? 희망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무엇이 당신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하는가를 말하고 있다.

(5) 간단한 도구들을 활용한 사정

임상적 서비스의 사정과정에서는 ‘사회적 지지망(Social Support Map)’ 이나

¹⁸⁰ Peter DeJong and Insoo Kim Berg, *Interviewing for Solutions* (Pacific Grove, CA: Brooks/Cole. 1998).

‘관심, 강점, 자원에 대한 사정표(ACSR: Assessing Concerns, Strengths and Resource)’ 또는 영적 가계도(Spiritual Genogram) 등과 같은 간단한 도구들을 활용하는데 이 도구에 영적인 부분을 삽입함으로써 심리, 사회적 영역과 동일한 방법으로 영적인 영역을 다룰 수 있게 된다.

사회적지지망 은 환경지도의 일종으로 사회사업실천에서 넓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종이에 그려진 여섯 조각의 파이는 가족, 친구, 직장/학교, 이웃, 공식적 조력자들, 그리고 교회/사회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을 중심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질문한다. 이 사회적지지망을 채워나가는 동안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지지 받는 자원들을 설명하게 된다. 특히 클라이언트가 교회나 종교적 조직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할 때 자연히 그 내용들과 함께 신앙적인 문제들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게 된다. 이 지지망은 후에 도움 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특별히 환경에 대한 접근을 결정할 때 “어떤 영역에서 더 도움을 받기 원하는가?” 를 질문할 수 있게 한다.

ACSR은 주택과 일상생활, 재정, 직장/교육, 사회적 지원, 신체적/정서적 건강, 그리고 영적 안녕(일곱째는 기타 항목을 들 수 있음) 등 여섯 개 영역에 대하여 현재와 과거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도록 준비된 종이를 클라이언트가 채워나가는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사는 영적인 정보를 편하게 얻을 수 있게 한다. 일차적인 사정이 끝난 경우 영적 가계도 같은 것을 그리게 함으로써 세대 간에 전달된 영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다.¹⁸¹

¹⁸¹ David Hodge, “Spiritual Genograms: A generational approach to assessing spirituality,” *Families in Society* 82(1) 2001. 35-48.

(6) 임상적 과정에서 기도의 활용

기도는 하나님 또는 초월적 존재와 의사소통이다. 기도는 매우 개인적인 영역이면서 동시에 문화와 종교적 신념 그리고 사회계층, 다양성과 실천적 태도를 나타내는 보편적 도구이기도 하다.¹⁸² 이미 진행된 많은 연구결과들이 기도가 신체적 영적 건강과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과, 기도를 통하여 사람이 음주나 마약 등 자신의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향하여 초점을 옮길 수 있게 한다고 믿고 있다. 분명한 것은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클라이언트에게는 기독교적 전통에 근거한 기도, 묵상, 명상 등이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내용을 제거한 세속적 전략들보다 훨씬 근원적 치료효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사실이다.¹⁸³ 그러나 기도와 사회 복지적 효율성은 반드시 비례한다는 증거는 제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영성적 특성에 따라 구분해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에 대하여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 실천여부에 관하여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갈랜드는 기도의 전체적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① 우리의 노력이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사실 - 우리의 노력이 부적절하거나 실패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당신의 인도와 임재를

¹⁸² O. Washington & D. Moxley, "The use of prayer in group work with African-American women recovering from chemical dependency," *Families in Society* 82(1) 2001, 49-60.

¹⁸³ P.S. Richards & A.E. Bergin, *A Spiritual Strategy for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7)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② 클라이언트와 함께하는 우리의 실천의 중심에 클라이언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세워졌다는 것 - 함께 기도할 때 클라이언트의 전체적인 삶의 상황에 대하여 직면하도록 돕게 된다.

③ 클라이언트가 설정한 영적인 자아와의 관계, 또는 다양한 클라이언트 체계들 간의 영적인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④ 하나님의 약속을 요구하고 희망을 가지게 함 - 용서, 구속,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에 대한 약속들을 제시하고 기도의 모범을 보임으로서 기도를 가르칠 수 있다.

동시에 갈랜드는 기도의 부적절한 목표들을 제시하였다:

① 기도하는 동안 또는 끝났을 때 기도가 압력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이 술을 끊게 도와주십시오!” 라거나 “이제 기도했으니 반드시 금주해야 합니다.” 등)

② 기도가 클라이언트에게 워커의 영성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워커의 영성은 모든 관계에서 나타나야 한다.)

③ 워커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모를 때에 기도가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

(7) 로고테라피(Logo Therapy)

의미 중심(meaning-oriented)의 철학과 치료방법론은 1967년에 빅터 프랭클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이 치료이론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인도주의적이고 영적인 특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많은 전문 분야에서 활용되었다.¹⁸⁴ 유대인 대학살에서 살아남아 「인간의 의미추구」라는 책을

¹⁸⁴ R. L. Barker, *The Social Work Dictionary* (Washington D.C.: NASW Press. 1995).

저술한 빅터 프랭클은 인간의 영적인 부분을 도외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원들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하였다. 인간은 환경적 요인에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굳이 부인하지 않지만 최악의 상태에서도 저항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존중하였다.¹⁸⁵ 그리고 그는 최악의 상태에서도 환경에 지배받지 않으려는 인간의 특별한 능력에 주목하고 그것을 고통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의 에너지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심리치료로서의 전문적 영역을 종교의 영역과 혼합하지 않았다. “로고테라피는 모든 환자에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하고, 의사의 세계관이 유신론적이든, 불가지론적이든 간에 모든 의사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¹⁸⁶ 물론 종교의 문을 열어두지만 그 문을 통과하고 안하는 것은 환자에게 맡긴다. 즉 무엇에 대해서,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환자자신에게 달린 문제로 남김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선택의 책임을 지키고자 한 것이다.

로고테라피 에서는 반성제거와 역설지향의 기법들을 통하여 인간의 자기초월과 자기이탈 능력을 활용하게 한다. 환자가 사로잡혀 있는 비현실적 강박증이나 공포증을 자기이탈을 통하여 반성하고 역설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오히려 자신이 문제 밖에 있음을 알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환자에게 자기의 증상에서 도피하려고 하거나, 그것과 싸우려고 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고, 오히려 증상을 강화시키는데 성공하면 증상은 경감되고 환자는 더 이상 증상에 사로잡히지 않게 됨을 알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유머 감각과 자기이탈이라는 독특한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 특별히 자신의 삶에 전체적이고 궁극적인 의미를 느끼지

¹⁸⁵ 프랭클 V. E. 『의미에의 의지: 로고테라피의 이론과 실제』 23.

¹⁸⁶ Ibid., 145.

못해서 내적인 공허(existential vacuum)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공허를 채워주기 위하여 환자가 자기의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의미와 가치의 가능성을 충분히 의식하도록 도와 줌으로, 그의 존재의 로고스(logos)에 그를 직면하게 함으로서 극복하게 돕는 것이 로고테라피이다.¹⁸⁷ 이러한 기법은 자기이탈이라는 특유한 인간 능력 즉 영적인 기능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다.

2. 거시적 접근: 기독교의 봉사적 영성 강화

거시적 사회복지의 영성적 접근을 위한 전략을 정리한다면, 먼저 신학자들은 봉사신학을 정립하고 교육해야 할 것이고, 목회자들은 봉사를 주제로 하는 설교와 성경공부, 기도회와 영성집회, 헌신예배 등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 사회복지인 들은 기독교봉사캠프, 기독교봉사사례 발굴, 홍보, 및 표창, 또 기독교의 봉사적 영성 관련 서적의 제작, 배포, 그리고 더 나아가 봉사신학과 영성관련 지원사업과 행사들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¹⁸⁸

(1) 봉사신학정립

기독교의 사회봉사적 정신을 형성하는 중요한 개념들로서 디아코니아 신학, 하나님의 선교, 통전적 선교, 영성신학, 생명·사랑·섬김의 신학, 성육신 사상, 전인적 구원론, 삼위일체신학, 교회갱신 등과 같은 신학적 주제들과 장애인, 노인, 아동, 외국인과 빈곤자 등 취약계층, 그리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성서적 교훈들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고 한국의 현실에 접목시키며 교계에 널리 전파되도록

¹⁸⁷ 프랭클, 149-168.

¹⁸⁸ 유장춘, “기독교사회복지운동의 방향과 전략”

발표되게 한다.

(2) 실천적 영성의 모델제시

현재 한국사회에서 탁월한 봉사적 영성을 소유한 신앙인들, 교회사의 뛰어난 족적을 남긴 사회봉사적 영성인물들, 외국의 위대한 사회봉사적 신앙인들을 찾아서 높이 존경받도록 노력하고 그들의 생각과 삶이 기독교인 삶의 모델로서 제시될 수 있도록 한다. 한국교회에도 테레사 수녀나 마틴 루터 킹 목사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모델로 제시되고 존중되고 높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영적공동체의 사회 복지적 모델로서 청량리 다일공동체와 천사병원, 동두천 다비다집, 음성 꽃동네, 수원 나섬의 집(소년원 출신의 공동체 생활) 경기도 남양만 활빈교회 및 두레공동체 등도 제시될 수 있다.¹⁸⁹

(3) 이타적 목적을 위한 기도와 영성운동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기도운동은 일반적으로 축복이나 은사와 결부되는 이기적인 경향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타적 목적을 위한 기도제목을 거시적 차원에서 제시한다든지, 사회적 문제를 위한 묵상록을 작성하도록 인도하는 일, 고통 받는 소외계층에 관련된 성구로 작성된 일일성경읽기 교안 제작과 같은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4) 봉사를 주제로 하는 목회적 활동에 대한 방법론 제시

목회자들은 봉사적 주제로 자주 설교해야 하고 자원봉사나 사회문제에 대한

¹⁸⁹ 김창모, 『생명과 영성의 치유윤리』 113.

성경공부모임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 민족문제나 선거, 통일, 세계기아문제나 아동, 노동자 등의 사회문제를 위한 기도회 열고, 김진홍 목사나 최일도 목사나 같은 인물들을 초빙하여 사회 영성집회를 실시하며, 사회봉사위원회나 사회사업부서의 헌신예배 등을 계획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적 영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기독교 교육에서 봉사를 위한 커리큘럼 도입

기독교 교육의 교과 내용에 사회봉사를 교육하는 커리큘럼을 도입하고 봉사를 위한 교육과 봉사를 통한 교육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기독교인의 봉사적 영성을 깊이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봉사를 경험하고 생활화 할 수 있는 수련회나 캠프, 또는 집단생활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활동이 하나의 이벤트나 행사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교육의 한 장으로서 정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6) 영성관련 문서 및 문화 활동

기독교사회복지운동으로서 기독교의 봉사적 영성 관련 서적의 제작, 배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또, 감동적인 영화나 연극을 제작하는 일도 필요하다. 또 사회봉사적 영상과 함께 진행되는 자선음악회 같은 행사를 주관하고, 사회참여적인 백일장도 구상해 봄직하다.

(7) 사회복지사의 영성적 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

전문사회복지사의 활동 내용에는 영적인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선택에 따라서 워커의 영성관련 요법이나 접근 방법론의 활용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임상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 함께
기도를 드리거나, 성경적인 교훈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VII 치유하는교회의 영성을 통한 사회복지 실천

1. 늘푸른 실버대학

(1) 교육목표

치유하는 교회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관내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웃을 섬기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교회가 평생학습 및 각종 동아리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삶의 지혜를 터득하여 노년기 자아실현과 취미생활에 기여하도록 하며 건전한 문화학습의 기회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시켜 이들을 영혼 구원으로 이끄도록 하기 위함이 목표를 삼고 진행되어 왔다.

(2) 사역소개

매년 2학기(1학기(3~6월), 2학기(9~11월))로 운영하며 수업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

이 수업을 통해 단순히 어떤 것을 가르친다라기 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들의 활동을 함께 접목시켜 교회가 더 친숙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제시하기 위함이 목적이 있다.

[서식1-1]

2023년 어르신문화교실(노인교실)

사업계획서

어르신문화교실(노인교실)명
치유하는교회 늘푸른실버대학

담당자 (실무자)	이현미	연락처	H.P : 010-4401-2548 E-mail:hhyuunn00@naver.com
--------------	-----	-----	---

I 시설개요

□ 시설 현황

대표자	김 의 식	담당자명	이 현 미
소재지	강서구 강서로15길 37	수업기간	7개월 (3,4,5,6,9,10,11월)
연락처	02-2603-6221	이용료(회비)	10,000원 (한 학기당)
종사자수	34명 (시설장:1명, 사무원:7명, 강사: 15명, 자원봉사자: 11명)		

II 2023년 운영계획

□ 연간 행사계획

월	주요행사 일정
1	겨울방학
2	겨울방학
3	3/7(1학기 개강식) 3/14 3/21 3/28 : 4회 활동
4	4/4 4/11 4/18 4/25 : 4회 활동
5	5/2 5/9 5/16 5/23 5/30 : 5회 활동
6	6/13 6/20 6/27 (6/6 현충일) : 3회 활동
7	여름방학
8	여름방학
9	9/5(2학기 개강식) 9/12 9/19 9/26 : 4회 활동
10	10/10 10/17 10/24 10/31 (10/3 개천절) : 4회 활동
11	11/7 11/14 11/21 11/28(종강식) : 4회 활동
12	겨울방학

□ 프로그램 운영계획

○ 강의 수: 11개(상시 11개/ 특강 개)

연번	프로그램명	요일	시간	참여인원	강사명	강사료 (원/월)
1	국악가요반	화	11:00~12:00	30	신운주	120,000
2	건강체조반	화	10:00~11:00	80	이현아	120,000
3	찬양가곡반	화	11:00~12:00	10	김경숙	
4	문학반 (한글)	화	11:00~12:00	10	조영자	120,000
5	두뇌운동반	화	11:00~12:00	10	오소라	
6	스트레칭반	화	11:00~12:00	20	임성옥	
7	무용반	화	11:00~12:00	10	권지현	
8	난타반	화	11:00~12:00	10	조가비	120,000
9	차밍댄스반	화	11:00~12:00	30	김은화	120,000
10	동화구연반	화	11:00~12:00	10	김혜정	
11	시와그림반	화	11:00~12:00	10	김명환	

□ 예산 운용 계획

내역	예 산 (천원)			산출내역 (원)
	합계	보조금	자부담	
강사료	5,040	4200	560	강사비: 600,000원×5명 = 4,200,000원 140,000원×6명 = 840,000원
재료비	1,400	-	1,400	재료: 100,000원×7회 = 700,000원 간담회비: 350,000원×2회 = 700,000원
식비	18,800	-	18,800	기본식비: 600,000원×28회 = 16,800,000원 간식(체험학습2,떡,커피): 2,000,000원
기타	3,400	-	3,400	야외 체험: 2,000,000원 종강선물비: 7,000원×200=1,400,000원

III 2019 실적 및 평가

월	주요행사 일정
소요예산	○ 총 금액 : 31,500,000원 - 구청지원 : 3,850,000원 - 자부담 : 27,650,000원 (후원 포함)
강 의 수	○ 13개 (상시 13 개/ 특강 개)
수업인원	○ 1일 평균 190명, 연인원 5,700명
수업일수	○ 총 28회(주1회, 방학기간 5 개월 제외)
활동실적	○ 2019. 3. 5. 개강식 ○ 2019. 4. 22.~23. 서산 수학여행(하늘과 바다사이 리조트) ○ 2019. 6. 25. 상반기 종강식(각반 발표회) ○ 2019. 9. 3. 하반기 개강식 ○ 2019. 10. 1. 포천 일동 온천욕 ○ 2019. 10. 8. 지역 바자회 행사 참여(수업 후) ○ 2019.11.26. 종강식 (각종 발표회 & 민요 공연)
2019 노인교실운영 자체평가	○ 잘된 점 - 수학여행 설문조사를 시행함 (진행측은 안전사고 염려로 수학여행과 온천욕을 폐지하고 자 하나 학우님들 호응도가 너무 좋아 재실시 계획) - 전체수업 진행시 넓은 장소 이동으로 활동하기 용이함 ○ 아쉬운 점 (or 건의사항) - 좋은 강사들을 서로 알리는 정보시스템이 필요로 함 - 재능 강사 추천 (동적인 프로그램)

IV 기타사항

□ 전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등

○ 예시) 신규 프로그램 편성, 남성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 개설 등
[서식1-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치유하는교회 늘푸른실버대학	김의식		강서구 강서로15길 37	co: 02) 2603-6221 HP: 010-6237-3072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원)

보조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기간
	계	지방보조금	자부담	
치유하는교회늘푸른 실버대학 운영지원	28,640,000원 (100%)	4,200,000원 (약 14.7%)	24,440,000원 (약 85.3%)	2023.3~11. (7,8월 외 7개월)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기관·단체명	보조사업명	보조금 교부액	보조금 정산액	정산 반납액	보조금회수로 인한 반환액
2019	치유하는교회 늘푸른실버대학	어르신문화교실 (노인교실)운영	3,850,00	3,850,00	0	
2018	치유하는교회 늘푸른실버대학	어르신문화교실 (노인교실)운영	3,850,00	3,850,00	0	
2017	치유하는교회 늘푸른실버대학	어르신문화교실 (노인교실)운영	3,850,00	3,850,00	0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지방보조사업자 (기관명) 치유하는교회 늘푸른실버대학

시설장 김 의 식 (서 )

[서식 1-3]

어르신문화교실(노인교실) 운영지원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강서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하겠으며, 귀 강서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강서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구청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동안 보관하지 않거나,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부과

2023.02.27.

기관명 치유하는교회늘푸른실버대학 시설장 김의식 ()

시설명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안드레 (서명)
시설명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이현미 ()

[별지1호서식-구청제출용]

2023년 9 월분 어르신문화교실(노인교실)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시 설 명	치유하는교회 늘푸른실버대학	시 설 장	김 의 식	
소 재 지	서울 강서구 강서로15길 37 (전화: 02-2603-6221)			
사 업 종 목	어르신복지사업			
보조사업의 목적	어르신여가복지사업 교육사업			
보조사업의 내용	어르신여가복지사업 교육사업			
이 용 정 원	200명 (현원 : 193명)			
보조사업 기간	2023년 9 월 1 일 ~ 2023년 9 월 30 일			
보조사업 소요경비	총소요액	보조금(구비)	자 체 부 담액	기 타 후 원 금
		600,000		
보조금(구비) 신청내역	신청액	600,000원		
	산출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지원액 : 600,000원 (운영프로그램 수 : 11 개) - 프로그램명 : 민요가요반, 건강체조반, 찬양가곡반, 문학회(한글), 두뇌운동반, 스트레칭반, 무용반, 난타반, 차명댄스반, 동화구연반, 시와그림반 · 추가지원액 : 원 (이용인원: 193명) 		
보조금 입금통장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농협	355-0084-7072-03		치유하는 교회
<p>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2023년 9 월분 어르신문화교실(노인교실) 운영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9월 01일</p> <p style="text-align: center;">어르신문화교실의 장 ()</p> <p style="text-align: right; font-weight: bold;">강서구청장 귀하</p>				
붙 임 : 보조금 청구서, 프로그램운영계획서 각 1부.				

[별지2호서식-구청제출용]

어르신문화교실 보조금 청구서

○ 건 명 : 2023년 9월분 치유하는교회늘푸른실버대학보조금 청구

○ 청구액 : 금 600,000원(금 육십 만원)

○ 송 금 계 좌

통장 채권자	치유하는교회
은행명칭	농협
계좌번호	355-0084-7072-03

상기와 같이 2023년 9 월분 치유하는교회 늘푸른실버대학 보조금을
정히 청구함.

2023 년 09 월 01 일

위 청구인 •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15길 37
 • 시 설 명 : 치유하는교회 늘푸른실버대학
 • 시 설 장 : 김 의 식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구의 보조금을 수령하면 교회 보조금과 합산하여 어르신들의 활동을 위한 준비물 구입 및 식단을 짜고 장소 협조를 구한다.

늘푸른 실버대학은 화요일에 진행되는데, 그 시간대에 성경공부 시간과 겹치므로 최우선순위로 실버대학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남은 장소에서 성경공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수업이 결정되고 선생님 모집이 완료되면 한 달 전 학우들에게 1차 편지, 2주 전 2차 편지를 통해 학교 개강을 알린다.

2019년까지는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었는데 2020년 코로나로 인한 어르신들의 감염 문제로 인해 1학기 개강을 연기하였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1학기가 취소되었다. 2학기부터 상황이 나아지면 개강하려 했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2020~2022년까지 실버대학을 개설하지 못했다.

2020년 늘푸른실버대학 1학기 학사일정

월	일	전체모임 1 10:00~10:45	전체모임 2 10:45~11:30	반별 모임 11:30~12:20	점심식사 12:20 ~13:00	조 직	
4	7일(화)	건강체조 (신병숙)	개강예배	반별 모임	즐거운 점심 식사	부총장: 안드레 부 장: 이재민 팀 장: 이현미 총 무: 오재홍 서 기: 김희경 회 계: 정순천 영 상: 이은우	
	14일(화)	건강체조 (신병숙)	노래교실 (윤혜란)	반별 모임		[소그룹 반과 담당 선생님]	
	21일(화)	건강체조 (신병숙)	노래교실 (윤혜란)	반별 모임		찬양가곡반: 김경숙/김은진 문학반(한글): 조영자 만들기반 :이향라/최정자 스트레칭반 :임성옥/오영희 무 용 반 : 권지현	
	28일(화)	건강체조 (신병숙)	노래교실 (윤혜란)	반별 모임		난 타 반 : 이현이/오영채 차밍댄스반 :김은화/양영이 민요합창반 :신상숙/권영애 포크댄스반 : 김혜정 필 사 반 : 김명환	
5	5일(화)	어린이날				즐거운 점심 식사	
	12일(화)	건강체조 (신병숙)	노래교실 (윤혜란)	반별 모임			
	19일(화)	건강체조 (신병숙)	노래교실 (윤혜란)	반별모임			
	26일(화)	건강체조 (신병숙)	노래교실 (윤혜란)	반별 모임			
6	2일(화)	건강체조 (신병숙)	노래교실 (윤혜란)	반별 모임		즐거운 점심 식사	[전체 프로그램] 노래교실 : 윤혜란 건강체조 : 신병숙
	9일(화)	건강체조 (신병숙)	노래교실 (윤혜란)	반별 모임			
	16일(화)	건강체조 (신병숙)	노래교실 (윤혜란)	반별 모임			[점심 식사] 주방팀 팀장 : 김산득 임구만 이재황 이은주 황계옥 양순호 윤숙진 (7명)
	23일(화)	건강체조 (신병숙)	노래교실 (윤혜란)	반별 모임			
	30일(화)	건강체조 (신병숙)	노래교실 (윤혜란)	반별 모임	※교사 전체인원 : 32명 (외부강사 2명 포함)		

늘푸른실버대학 1학기 개강 (연기) 안내

학우님! 겨울방학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3월 늘푸른실버대학 개강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예방과 면역력이 약한 고령의 학우님들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 개강을 아래와 같이 연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우님들께서는 건강을 위해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고, 개강 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수칙

- 외출 및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기
- 손으로 눈, 코, 입 등 얼굴부위를 만지지 말고, 손으로 음식물 먹지 않기
- 외출 후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기(30초 이상)
-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않기 등

- 아 래 -

1. 일 시: 2020년 4월 7일(화) 10:00
2. 장 소: 힐링 채플(지하 1층)
3. 대 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4. 회 비: 10,000원(2020학년도 1학기)
5. 문 의: 치유하는 교회 사무실 ☎02-2603-7653
안드레 목사 010-4163-1265
이현미 팀장 010-4401-2548



대한예수교
장로회

함께 올고 함께 웃는

치유하는 교회 늘푸른실버대학

늘푸른실버대학 1학기 학사일정 취소 안내

학우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아시아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온 세상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관계 당국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고, 각 급 학교는 개강을 연기하는 등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늘푸른실버대학에서는 면역력이 약한 고령의 학우님들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 1학기 학사일정을 취소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님들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코로나 감염이 잠잠해지면 2020년 2학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 코로나19 예방수칙

- 외출 및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기
- 손으로 눈, 코, 입 등 얼굴부위를 만지지 말고, 손으로 음식물 먹지 않기
- 외출 후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기(30초 이상)
-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않기 등 사회적 거리 두기

- 아 래 -

1. 1학기 학사일정: **취소**
2. 2학기 학사일정: **2020년 9월 개강 계획**
3. 문 의: 치유하는 교회 사무실 ☎ 02-2603-7653
안드레 목사 010-4163-1265
이현미 팀장 010-4401-2548



대한예수교
장로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치유하는 교회 늘푸른실버대학

2023년 늘푸른실버대학 2학기 학사일정

월	일	전체 모임 1	반별 모임	점심식사	조 직
		10:00~11:00	11:00~12:00	12:00~	
9	5(화)	개강 예배(10:00~10:30) 건강 체조(10:30~11:20) 반별 모임(11:20~12:00)		점심식사 식사 후 집으로~	부총장: 안드레 목사 팀 장: 이현미 총 무: 오영채 서 기: 윤영애 회 계: 정순천 영 상: 이은우 섬김이: 오재홍, 곽영민 [소그룹반과 담당 선생님] 찬양가곡반: 김경숙/박명자 문학반(한글): 조영자 두뇌운동반 :오소라/최정자 스트레칭반 :임성옥/오영희 무 용 반 : 권지현 난 타 반 : 조가비 차밍댄스반 : 김은화/김기옥 국악가요반 :신윤주/권영애 동화구연반 : 김혜정 시와그림반 : 김명환 [전체 프로그램] 국악가요 강사 :신윤주 건강체조 강사 : 이현아 [점심 식사] 주방팀 팀장 : 김보정 팀원: 김묘정, 임구만 이채황, 이은주, 오경옥 오은숙, 정경옥, 정영숙 *교사 전체인원 : 33명 (외부 강사 3명 포함) *늘푸른실버대학 헌신예배 :11월 22일(수)
	12(화)	건강체조 (이현아 강사)	반별 모임		
	19(화)	건강체조 (이현아 강사)	반별 모임		
	26(화)	건강체조 (이현아 강사)	반별 모임		
10	3(화)	개천절			
	10(화)	건강체조 (이현아 강사)	반별 모임		
	17(화)	야외 활동			
	24(화)	건강체조 (이현아 강사)	반별 모임		
	31(화)	건강체조 (이현아 강사)	반별 모임		
11	7(화)	건강체조 (이현아 강사)	반별 모임		
	14(화)	건강체조 (이현아 강사)	반별 모임		
	21(화)	건강체조 (이현아 강사)	반별 모임		
	28(화)	종강 예배 및 각반 발표회			

2023년 늘푸른실버대학 회원가입 신청서

1. 개인 정보

성 명		생년월일	
보호자명		연 락 처	회 원:
주 소			보호자:
			집 :

+

2. 희망 프로그램 수강반(※ 원하는 반에 ○ 표시해 주세요.)

- | | |
|------------------------|--------------------------|
| ○ 찬양가곡반/ 찬양대실(4층) () | ○ 난타반/ 악기실(지하 3층) () |
| ○ 문학반(한글)/정오의빛(4층) () | ○ 차밍댄스반/ 화평홀(4층) () |
| ○ 두뇌운동반/ 양선홀(4층) () | ○ 국악가요반/ 힐링채플(지하 1층) () |
| ○ 스트레칭반/ 인내홀(4층) () | ○ 동화구연반/ 충성홀(4층) () |
| ○ 무용반/ 지하 2층 () | ○ 시와그림반/ 충성홀(4층) () |

3.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내용
1	이용자는 늘푸른실버대학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이용자는 프로그램 이용기간 동안 프로그램 관리 차원의 목적으로 늘푸른실버대학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때 사용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 접수·관리(생일잔치)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된다. (야외 활동 시 여행자 보험가입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제공 동의, 활동사진 촬영 및 늘푸른실버대학 자료전시 및 게시에 초상권 동의 등)
<p>본 동의서는 늘푸른실버대학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프로그램 제공에 있어 문제 및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용자와 늘푸른실버대학과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이 가능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본인 : _____ (서명) 보호자 : _____ (서명)</p>	

늘푸른실버대학 1학기 개강 안내

학우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3년 동안 뵙지 못했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면역력이 약한 고령의 학우님들의 안전을 고려하면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올해 우리 치유하는 교회 늘푸른실버대학에서는 어르신들의 부응으로 노인대학을 개강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가문화와 보람된 여생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우님들께서는 이웃의 벗들과 함께 오셔서 웃고, 소통하고, 교제를 나누며 귀한 만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계시는 친구분도 함께 오셔 입구에서 회원 가입신청서를 꼭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므로 행복 가득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아 래 -

1. 일시: 2023년 3월 7일(화) 오전 10시
2. 장소: 힐링 채플(지하 1층)
3. 대상: 만65세 이상 어르신
4. 회비: 1만원(1학기)
5. 문의: 치유하는 교회 사무실 ☎ 2603-7653
안드레 목사 010-4163-1265
이현미 팀장 010-4401-2548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치유하는 교회** 늘푸른실버대학

2023년 드디어 늘푸른 실버대학이 개강을 했다.

늘푸른실버대학 1학기 개강 예배

2023년 3월 7일(화) 10:00 힐링채플(지하 1층)

예배의 부름			이현미	팀장
찬 송	369장(죄 짐 맡은 우리 구주)	다	같이
기도			오영채	총무
성경봉독	레위기 19:32	이현미	팀장
너는 선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 씬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안드레	목사
찬 송	413장(내 평생에 가는 길)	다	같이
축 도			안드레	목사

★ 광고

1. 1학기 학사 일정 (전체 반 1개, 소그룹 반 10개) - 전체 프로그램은 10~11시까지, 소그룹 반은 11~12시까지
 - 점심 식사는 12시 이후부터 시작함 (반 담당 선생님이 식권 배부)
2. 오늘 일정
 - 개강 예배(10:00~10:30) / 건강 체조(~11:20) / 반별 모임(~12:00)
3. 계단, 엘리베이터 이용할 때 천천히 순서 지켜주세요.
4. 소그룹 반별 활동을 마친 후 5층 식당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받은 식권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실버대학 1학기 종강예배

2023년 6월 27일(화) 10:00 힐링채플(지하 1층)

예배의 부름	이 현 미	팀 장
찬 송	... 337장(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	다	같 이
기 도	오 영 채	총 무
성경 봉독 열왕기상 12:1~11	이 현 미	팀 장
선교 무용 은 혜	전 수 연	사 모
말 씬 노인 과 젊은 이	안 드 레	목 사
축 도	안 드 레	목 사

순교자 찬송
E. A. Hoffman, 1894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총 363) 337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마 11:28) ORWIGSBURG: 10.9.10.9-REF.
E. A. Hoffman, 1894

모퉁으로

1.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 에 아뢰 이 면
2. 내 모든 괴롭 닢 치는 환 난 주 예수 앞 에 아뢰 이 면
3. 내 짐 이 점 점 무거운 죄 를 주 예수 앞 에 아뢰 이 면
4. 마음 의 시험 무거운 죄 를 주 예수 앞 에 아뢰 이 면

근심에 싸인 날 돌아 보 사 내 근심 모두 말 으 시 네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 사 넓으신 사랑 베푸 시 네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 사 내 대신 짐을 져 주 시 네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 사 세상을 이길 힘 주 시 네

후렴

무거운 짐 을 나 홀로 지 고 견디 다 못 해 쓰 러 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 해 줄 이 은혜 의 주 님 오 직 에 수

사본과 곡책

학우들의 성향과 취미에 맞춰 여러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는데, 공통된 수업으로는 10시에 시작되는 1교시 전체 노래교실과, 2교시, 건강체조를 한시간동안 하면서 스트레칭과 노래로 어색한 시간을 즐겁게 하며 굳었던 몸을 푸는 시간을 가진다.

3교시에는 동아리활동으로 각각 수업 장소로 이동하여 수업을 받는다.

치유하는교회는 총 4대의 승강기가 있다. 그 중 3개를 사용하여 이동을 하는데, 매번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젊으신 학우들과, 건강한 학우들은 계단으로 안내를 하며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이동한다.

동아리반은 총9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는 해 년 마다 교사충원에 맞춰 변경 됨)

합창반: 찬송가, 가요, 민요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수업한다.

음악반: 보다 전문적으로 화음을 맞춰 노래를 수업한다.

스트레칭반: 부드러운 몸풀기 운동으로 요가 등 몸을 유연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수업을 한다.

차밍댄스반: 화려한 옷을 입고, 지루박, 차차차 등, 댄스수업을 한다.

종이접기반: 손을 많이 움직여야 하는 종이접기를 통해 치매를 예방한다.

문학반: 성경필사, 시낭송, 시쓰기 등 문학과 관련된 수업을 한다.

난타반: 북을 치므로 스트레스를 날리고 서로 한 마음으로 하나되는 모습을 선보인다.

무용반: 전통무용을 통해 아름다운 한국의 멋을 드러낸다.

두뇌개발반: 색칠하기, 틀린 그림 찾기, 숨은 그림 찾기 등 활동을 통해 생각하고, 손을 움직이는데 중점을 두고 수업한다.

또한 년중 행사로 3월 온천여행, 5월 1박2일 수학여행, 9월 온천여행이 있으며 매월 생일축하와 방학식과 종업식에 치유하는교회 성도들 앞에서 반별

발표회를 한다.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예배 늘푸른 실버대학 헌신예배.

무용반 공연



난타반 공연



민요가요반 공연



차밍댄스 반



찬양가곡반



늘푸른 실버대학 헌신찬양(마무리)



2. 화곡, 연지 복지센터와의 연계

화곡복지센터와 강서구립 연지어르신복지센터는 치유하는교회가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곳의 어르신들은 그나마 나은 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정작 교회 위탁임에도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다.

그리고 요즘 추세가 복지에 복음을 넣기가 쉽지도 않다.

그래서 교회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바자회를 통해 수익금을 하나님의 을 실천하고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외부에서는 먹거리 장터를 열었다.



비가오는 관계로 교회 식당을 개방하여 구입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실내에서는 이벤트의 일환으로 윗놀이를 하였다.





강서구 나누리병원의 지원으로 혈당, 당뇨, 골다공증 검사를 실시하였다.

VIII 나가는 말

교회는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을 찾아내고 교회로 불러 들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교회에서 하는 노인대학과 여러 활동에 대해 종교적인 색채를 띄지 말라고 주문을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조금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협박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봉사와 복지를 통해 단순히 돕는데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2 장을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음으로 인해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다.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니 그 집에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의 몸에도 향유 냄새가 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한 여인의 주를 향한 헌신의 행위가 예수님은 물론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한 이들에게까지 유익을 가져다준 것이다.

영성적 접근을 통한 헌신도 이와 같다. 우리가 행했던 헌신과 섬김이 예수님과 이웃을 위한 조그마한 헌신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실로 천국과 공동체를 위한 커다란 유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10 장 42 절 말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 하셨고, 마가복음 4 장 31 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고 천국은 작은 겨자씨 한알로부터 시작된다 말씀하셨다.

유대교의 율법 해설집인 ‘탈무드’ 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 아와를 만드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만일 아담의 머리뼈를 빼냈다면 이브가 아담의 머리 위에서 군림할지도 모른다. 가장 아래에 있는 발가락뼈로 만들었다면 아담이 이브를 짓밟지 않았을까? 그래서 몸의 가운데에 있는 갈비뼈를 빼내어 아담의 중심과 이브의 중심을 이은 것이다.”

갈비뼈로 이어진 아담과 이브의 모습은 남 녀간, 또는 부부간 평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평등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뼈 속에 불어넣으신 생명의 입김이고, 생명의 원천은 사랑인 것이다. 그 이유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랑’ 이시기 때문이다. 생명과 사랑의 오케스트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성을 통한 복지활동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우리의 작고 미세한 헌신과 사랑이 작게는 가정, 나아가 사회 전반을 변화시킬 것이다. 진실한 신앙의 한 행위가 이 땅의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앞당길 것이다.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듯, 무조건 크고 거창한 일만을 도모하다 결국 소리는 썩과리가 되기보다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헌신과 봉사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접목시켜 이 땅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믿게 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권택조. 『영성발달』. 서울: 예찬사, 1999.
- 김기원. 『기독교 사회복지론』. 서울: 제일법규, 1999.
- 김만두. 『현대 사회복지 총론』. 서울: 홍익재, 1982.
- 김완호 외. 『사회복지학개론』. 서울: 청목출판사, 2004.
- 김진호. 『예수의 역사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8.
- 김창모. 『생명과 영성의 치유윤리』. 서울: 한들출판사, 2003.
- 문교수. “평신도 영성 훈련이 교회성장에 미치는 영향”. 신학석사논문,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1990.
- 민영진. “교회사회봉사의 구약성서적 근거”, 바른목회 실천협의회 편, 『바른목회』, 서울: 한들출판사, 2001.
- 박경일 외. 『사회복지학강의』. 서울: 양서원, 2000.
- 박용순. 『사회복지개론』. 서울: 학지사, 2001.
- 박종삼. “교회사회사업의 학문적 정체성: 문제의 제기”. 교회사회사업학회자료집, 2002.
- 박태우. “성서에 나타난 사회복지상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2000.
- 서인석.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 왜관: 분도출판사, 1979.
- 손달익. 교회역사 강의 - 한국교회사 50장면 (33) 한국 사회복지의 시작.
- 안영권. 『목회와 신학』.
- 이병진. 김덕환. “기독교사회복지사 훈련프로그램 개발”. 한일신학대학교,

- 디아코니아연구소 편. 기독교 사회사업 (Ⅱ), 1997.
- 이삼열 외. 『기독교 사회복지의 사상과 실천』. 서울: 한울, 1992.
- 이선교. “영성신학적 이해와 영성개발에 관한 연구”. 신학석사논문,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1987.
- 이영철 외. 『사회복지학』. 서울: 양서원, 2000.
- 장인협. 『사회복지학개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 『사회사업실천방법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 『사회복지학개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 장일조. 『사회운동 이념사』. 서울: 전망, 1979.
- 전재일 외. 『사회복지론』. 서울: 형성출판사, 1996.
. 『사회복지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2001.
- 정길홍. 『사회복지개론』. 서울: 홍익제, 1999.
- 정승훈. 『종교개혁과 칼뱅의 영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정인창. 『성서대백과』. 서울: 기독지혜사, 1981.
- 조재국. 『예수, 십자가에 달린 민중』. 서울: 도서출판민중사, 1997.
- 존 딜런버거. 『루터 저작선-독일 민족의 귀족에게 호소함』.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 지동식. 『로마제국사와 기독교』. 서울: 신학연구소, 1986.
- 최봉기.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길』.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9.
- 탁균호. “영성발달을 통한 부정적 자아의 치유” 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교
대학원, 1997.
- 프란시스 A, 셰이퍼. 『기독교 영성관』. 전호진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 프랭클 V. E. 『의미에의 의지: 로고테라키의 이론과 실제』.

- 하워드 L. 라이스. 『개혁주의 영성』 .
- 한국조직신학회 편. 『조직신학 속의 영성』 .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한국칼뱅학회 편. 『칼뱅신학 해설』 .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호세루이스 곤잘레스. 『마더 테레사, 말씀』 . 황애경 역. 서울: 디자인하우스 1997.
- 『그랜드종합주식 I-창세기』 .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1.
- 『기독교 대백과』 11권. 서울: 기독교문사, 1995. “영” 항목.
- 『기독교 대백과』 11권. 서울: 기독교문사, 1995. “영성” 항목.
- Alister E. McGrath. “*Spirituality in an Age of Change*” (Grand Rapid: Zondervan)
- Baring, A., & Cashford, J. (1991). “*The myth of the goddess: Evolution of an image*”. New York: Viking Arkana. 장인협 역. 『영성과 사회복지실천』 . 서울: 사회복지실천연구소, 2002.
- Barker, R. L. “*The Social Work Dictionary*”, NASW Press. 1995.
- Bartlett, Jason. “*Americans Filled with Spirit, Survey Finds*”
- Berthold, S. (1989). “*Spiritism as a form of psychotherapy. social Casework*”, 70 (8). 장인협 역. 『영성과 사회복지실천』 . 서울: 사회복지실천연구소, 2002.
- Bradly Hansen, Christian. “*Spirituality and Spirituality and Spiritual Theology, Dialogue 21*”. (1982) 안영권,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인가,” . 『목회와 신학』 . 1993년 10월호.
- Brower, I. (1984). “*The 4th ear of the spiritual-sensitive social worker*”. (Ph D. dissertation, Union for Exoerimenting Colleges and University, Microfilm International No.8500785). 장인협 역. 『영성과 사회복지실천』 . 서울: 사회복지실천연구소, 2002.
- Bullis, R. (1992). “*Psychologists and the mystical process*”. *Journal of Contemporary*,22 (1). 장인협 역. 『영성과 사회복지실천』 . 서울: 사회복지실천연구소, 2002.

- Canda, E. & Furman, L. “*Spiritual Diversity in Social Work Practice: The Heart of Helping*”, (New York: Free Press, 1999)
- Canda, E. (1986). “*A conceptualization of spirituality for social work*”. *International Social Work*, 26 (4). 장인협 역. 『영성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사회복지실천연구소, 2002.
- Canda, E. (1990). “*An holistic approach to prayer for social work practice. Social Thought*”, 16 (3). 장인협 역. 『영성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사회복지실천연구소, 2002.
- Canda, E., & Phaobtong, T. (1992). “*Buddhism as a support system for Southeastern Asian refugees. Social Work*”, 37 (1). 장인협 역. 『영성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사회복지실천연구소, 2002.
- Carlidge, D., & Duncan, D. (1980). “*Documents for the study of the gospels. New York Collins*”. 장인협 역. 『영성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사회복지실천연구소, 2002.
- D. G. 베너. 『정신치료와 영적탐구』. 이만홍·강현숙 역. 서울: 하나의학사, 2000.
- D. H. Tripp, “*A Protestant Reformation.*” ed. by D. Jones, G. Wainwright, E. Yarnold, SJ. *The Study of Spirituality* (Landon: SCM, 1980).
- DeJong, Peter and Berg, Insoo Kim. *Interviewing for Solutions*. Pacific Grove, CA: Brooks/Cole. 1998.
- Dieter. 『성화에 대한 다섯 가지 견해』
- E. Wickenden. (1965), “*Social Welfare in a Changing World*” (Washington, D, C: Public Affairs Press.
- Ehrenwald, J. (Ed.). (1991). “*The history of psychotherapy*”. Northvale, NJ: Jason Aronson Inc. 장인협 역. 『영성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사회복지실천연구소, 2002.

- Friedlander, Walter A. & Robert Z.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4.
- Goetz, D., & Morley, S. (1950). *Popol vuh*. Norman, OK: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장인협 역. 『영성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사회복지실천연구소, 2002.
- Helminiak, D. (1989). Self-esteem, sexual self Acceptance, and spiritualit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7. 장인협 역. 『영성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사회복지실천연구소, 2002.
- Hepworth, O., & Larsen, J. (1986). *Direct social work practice (3rd Edition)*. Chicago: The Dorsey Press. 장인협 역. 『영성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사회복지실천연구소, 2002.
- Hodge, David. (2001), *“Spiritual Genograms: A generational approach to assessing spirituality.”* *Families in Society*, 82(1).
- Ikenberry, J. (1975). Psi and our cosmic age.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3(4). 장인협 역. 『영성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사회복지실천연구소, 2002.
- John Calvin. *“Institutes for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 trans.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 Juergen Moltmann. 『하나님 체험』. 전경연 편, 복음주의 신학총서, 한신대학출판부, 1982.
- Karl Heinz Neufeld, *“Spiritualität”*, *Lexikon der katholischen Dogmatik* (freiburg: Herder, 1991).
- Keefe, T. (1986). *“Meditation and social work treatment”*. In F J. Turner, *Social Work Treatment*, 장인협 역. 『영성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사회복지실천연구소, 2002.
- Krassner, M. (1986). *“Effective features of therapy from the healer's perspective: A study of Curandrisimo”*. *Smith College studies in Social Work*, 56 (3). 장인협 역. 『영성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사회복지실천연구소, 2002.

- Kwon Tack-Joe, “*An Integrative Model for Spirituality Development in Three Domains of Learning Theory*” (Ph. D Dissertation, Biola University, 1997).
- L. Joseph Richard, 『칼뱅의 영성』. 한국칼뱅주의연구원 역,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6.
- Laird, J. (1984). “*Sorcerers, shamans, and social workers: The use of ritual in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29 (2). 장인협 역. 『영성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사회복지실천연구소, 2002.
- McGrath. “*Spirituality in an Age of Change*”.
- Melvin E. Dieter. 『성화에 대한 다섯 가지 견해』. 김원주 역. 서울: IVP, 1992.
- Meyer, M. (1987). “*The ancient mysteries: A sourcebook. San Francisco: Harper & Row*”. 장인협 역. 『영성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사회복지실천연구소, 2002.
-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s. (1990). “*Code of Ethics*”. Silver Spring, MD: Author. 장인협 역. 『영성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사회복지실천연구소, 2002.
- Peter L. Burger. 『현대사회와 신』. 김쾌상 역. 서울: 기독교서회, 1995.
- Philip. C. Holtrop. 『기독교 강요 연구 핸드북』. 박희석 · 이길상 역.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5.
- Priychar, J. (1975). “*The ancient near East*” (Vol. 2).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장인협 역. 『영성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사회복지실천연구소, 2002.
- Richards, P.S. & Bergin, A.E. “*A Spiritual Strategy for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7).
- Romanyshyn, John M. “*Social Welfare*”. New York: Random House.
- Sanville, J. (1975). Therapists in competition and cooperation with exorcists: The spirit world clinically revisited.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3(4). 장인협 역. 『영성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사회복지실천연구소, 2002.

- Sheridan, M., & Bullis, R., Adcock, C., Berlin, S., & Miller, P. (1992). “*Serving diverse religious client populations: Issues for social work education and practice*.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28 (2). 장인협 역. 『영성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사회복지실천연구소, 2002.
- Spencer, S. (1956). “*Religious and spiritual values in social casework practice*. *social Casework*”, 57. 장인협 역. 『영성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사회복지실천연구소, 2002.
- Titmuss, Richard M. “*Social administration in a changing society*”, in *Essays on the Welfare state*, Boston: Beacon Press, 1963.
- Vermaseren, M. (1977). “*Cybele and Attis*”. (Tr. Lemmers). London. 장인협 역. 『영성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사회복지실천연구소, 2002.
- Washington, O & Moxley, D. (2001). “*The use of prayer in group work with African-American women recovering from chemical dependency*. *Families in Society*”, 82(1).
- Wickenden, E. “*Social Welfare in a Changing World*”/ (Washington, DC: Public Free Press, 1965.
- 古川孝順 外. 『社會福祉論』, 1993.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DRE AN

Place and Date of Birth: Jeollanam-do, South Korea, Sep 15, 1982

Parent`s Names Chungsoon An and Inok Jung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 Measan High School 58, Yeongdong-gil, Suncheon-si,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Diplom a	Feb. 2, 2001
Collegiate Honam Theoglcal University : 77, Jejung-ro, Nam-gu, Gwangju, Republic of Korea	B. A.	Feb. 2, 2010
Graduate: Honam Theoglcal University 77, Jejung-ro, Nam-gu, Gwangju, Republic of Korea	M. Div.	Feb. 5, 2013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DRE AN

Name typed

Feb 29. 2024

Date